

해외출장
보고서

미국 내 국외사적지 활용·관리 현황 및 이민유산 지정·관리 정책 추진 사례 조사

2023.07.08 - 07.17
미국 워싱턴 D.C., 로스앤젤레스

이규철 연구위원, 손은신 부연구위원

목차

1. 출장 개요 및 일정	1
1) 출장 개요	
2) 출장 목적	
3) 주요 업무수행	
4) 주요 일정	
2. 미국 내 국외사적지 활용·관리 현황 조사	7
1) 워싱턴 D.C.	
2) 필라델피아	
3) 로스앤젤레스	
4) 리버사이드	
3. 미국 이민유산 정책 추진 사례 조사	34
1) LA 시 이민유산 정책 추진 관련 관계자 면담	
2) 흥사단소 및 캘리포니아 한인 국외사적지 관련 관계자 면담	
3) 이민사·이민유산 관련 박물관 답사	
4) 이민사·이민유산 관련 장소 답사	
4. 출장 성과 및 시사점 요약	49
붙임. 구득 자료 목록	52

1. 출장개요 및 일정

1) 출장개요

- 출장기간 : 2023년 7월 8일(토) ~ 7월 17일(월) / 8박 10일
- 출장지역 : 미국 워싱턴 D.C., 로스앤젤레스
- 출장자 : 이규철 연구위원, 손은신 부연구위원

2) 출장목적

- 미국 내 국외사적지 활용·관리 현황 조사
 - 대한민국 정부 매입 국외사적지 사례 활용·관리 현황 답사 (워싱턴 주미대한제국공사관, LA 흥사단소)
 - 워싱턴 D.C. 및 LA 일대 주요 대한민국 국외사적지 현황 답사 (한국전쟁참전용사 기념공원, 주미대한민국대사관저, 서재필기념관, 대한민국민회기념관, 한미우정의 종, USC 한국학연구소 등)
 - 현지 내 국외사적지 조사·활용·운영·관리 현황 관련 관계자 면담 및 운영실태 조사
- 미국 이민유산 정책 추진 사례 조사
 - LA 시 이민유산 정책 추진 관련 관계자 면담 (LA시 도시계획과)
 - 이민사 및 이민유산 관련 박물관·장소 답사 (National Museum of African-American History and Culture, German-American Friendship Garden, Japanese-American Museum, LA Little Tokyo, Chinese-American Museum, Getty Villa Museum, Harada House 등)

3) 주요 업무수행

- 미국 내 국외사적지 활용·관리 현황 조사 (24개소)

지 역	명 칭	주 소	관계자 면담 여부	방문일
워싱턴 D.C. (8개소)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900 Ohio Dr SW, Washington, DC 20024	-	7/9
	프리어 갤러리 한국실	105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004	-	7/9
	주미대한제국공사관	1500 13th St NW, Washington, DC 20005	강임산 외 4명	7/9
	주미대한민국대사관저	4801 Glenbrook Rd NW, Washington, DC	노진홍	7/11
	아메리칸대학교 왕벚나무와 한국정원	East Quad Building, Washington, DC 20016	강임산	7/11

	주미대한민국대사관(현)	245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7/11
	워싱턴 한국문화원 (2번째 대사관)	237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7/11
	주미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 서재필 동상	232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7/11
필라델피아 (5개소)	서재필기념관	100 E Lincoln St, Media, PA 19063	최정수 서경희	7/10
	리틀극장	1714 Delancey Pl, Philadelphia, PA 19103		7/10
	성삼위교회	1904 Walnut St, Philadelphia, PA 19103		7/10
	한국통신부 터	1528 Chestnut St, Philadelphia, PA 19102, 39°57'03.6"N 75°10'00.3"W		7/10
	신앙과 자유 디스커버리 센터	101 N Independence Mall E, Philadelphia, PA 19106		7/10
LA (9개소)	김영옥중학교	615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	7/12
	Wilshire/Western /Alfred Hoyun Song Station	377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05	-	7/12
	다울정 (Korean Pavilion)	1000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6	-	7/12
	흥사단소	3421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07	임종현 이준학 Kevin Kim	7/14
	도산 안창호 광장	1374 W Jefferson Blvd, Los Angeles, CA 90007	-	7/14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1374 W Jefferson Blvd, Los Angeles, CA 90007	-	7/14
	대한민국민회기념관	1368 W Jefferson Blvd, Los Angeles, CA 90007	Clara Won 김혜자 외 1인	7/14
	USC한국학연구소	809 W 34th St, Los Angeles, CA 90089	Gloria Koo	7/14
	한미 우정의 종	3601 S Gaffey St, San Pedro, CA 90731	권재우	7/15
리버사이드 (2개소)	도산 안창호 동상	3750 Main St, Riverside, CA 92501	최창호	7/15
	파차파 캠프 터	3096 Cottage St, Riverside, CA 92507		7/15

• 미국 이민유산 정책 추진 사례 조사

구 분	내용	방문 장소	관계자 면담 여부	방문일
공무원 면담	LA 시 이민유산 정책 추진 현황 면담	LA 시청 회의실	Ken Bernstein Christina Park	7/13
전문가 면담	흥사단소 및 캘리포니아 한인 국외사적지 관련 면담	LA 숙소 회의실	차만재 이준학 임종현 박희준 정문식	7/14
이민유산 ·이민사 관련 현장 답사	이민사·이민유산 관련 박물관 답사	National Museum of African-American History and Culture (국립흑인역사문화박물관)	-	7/9
		Chinese-American Museum (중국이민사박물관)	-	7/13
		Japanese-American National Museum (국립일본이민사박물관)	Kristen Hayshi Christina Park	7/13
		Getty Villa Museum	-	7/14
	이민사·이민유산 관련 장소 답사	German-American Friendship Garden	-	7/9
		Little Tokyo	-	7/13
		Harada House	임종현	7/15

• 관계자 면담 및 자문회의 수행

일 자	현지시간	주 제	회의 장소	참석자
7/9(일)	16:00~19:00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관리·운영 현황 자문회의	주미대한제국 공사관	총 7명 - (원외) 강임산 소장, 조행리, 정정아, 조수빈, 원혜신 주임(국외소재문화재재단 미국사무소) - (AURI) 이규철, 손은신
7/10(월)	10:30~13:30	서재필기념관 관리·운영 현황 자문회의	서재필기념관	총 5명 - (원외) 최정수 이사장, 서경희 이사(서재필기 념재단), 강임산 소장(국외소재문화재재단 미국사무소) - (AURI) 이규철, 손은신
7/11(화)	10:00~14:00	주미대한민국대사관저 관리 현황 조사	주미대한민국 대사관저	총 6명 - (원외) 노진홍 실무관(주미국대사관), 강임산 소장, 조행리·정정아 주임(국외소재문화재재 단 미국사무소) - (AURI) 이규철, 손은신
	15:00~19:00	워싱턴 DC 로건서클 역사지구 내 국외사적지 답사 및 자문회의	워싱턴 내 국외사적지 및 로건서클 일대	총 7명 - (원외) 강임산 소장, 조행리, 정정아, 조수빈, 원혜신 주임(국외소재문화재재단 미국사무소) - (AURI) 이규철, 손은신

7/13(목)	09:00~13:00	LA시 이민유산 지정·관리 정책 추진 현황 자문회의	LA 시청 회의실	<p>총 7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외) Ken Bernstein, Christina Park(LA시 도시계획과), 임종현 대표, Chad Keller(헤리티지 스마트 역사보존 컨설팅), 강임산 소장(국외소재문화재재단 미국사무소) - (AURI) 이규철, 손은신
	16:00~18:00	일본이민사박물관 현황 조사 및 관계자 면담	일본이민사박물관	<p>총 7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외) Kristen Hayshi 학예사(일본이민사박물관), Christina Park(LA시 도시계획과), 임종현 대표, Chad Keller(헤리티지 스마트 역사보존 컨설팅), 강임산 소장(국외소재문화재재단 미국사무소) - (AURI) 이규철, 손은신
7/14(금)	09:00~10:00	LA 흥사단소 조사·관리 현황 및 활용계획 자문회의	LA 흥사단소	<p>총 7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외) 임종현 대표, Chad Keller(헤리티지 스마트 역사보존 컨설팅), 이준학 지부장(흥사단 LA지부), Kevin Kim 대표(Zip8949), 강임산 소장(국외소재문화재재단 미국사무소) - (AURI) 이규철, 손은신
	11:00~14:00	USC 한국학연구소 운영·관리 현황 자문회의	USC 한국학연구소	<p>총 7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외) Gloria Koo 부소장(USC한국학연구소), 이준학 지부장(흥사단 LA지부), 임종현 대표, Chad Keller(헤리티지 스마트 역사보존 컨설팅), 강임산 소장(국외소재문화재재단) - (AURI) 이규철, 손은신
	17:00~21:00	흥사단소 및 캘리포니아 한인 국외사적지 조사·연구 관련 자문회의	숙소(Garden Suite Hotel) 회의실	<p>총 9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외) 차만재 교수(UC Fresno), 이준학 지부장(흥사단 LA지부), 정문식 PD(SBS International), 박희준 회계사(한미유신재단), 임종현 대표, Chad Keller(헤리티지 스마트 역사보존 컨설팅), 강임산 소장(국외소재문화재재단) - (AURI) 이규철, 손은신
7/15(토)	10:00~17:00	리버사이드 국외사적지 조사·관리 현황 자문	파차파캄프 등 리버사이드 일대 (답사 병행)	<p>총 7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외) 최창호 前지부장, 이준학 지부장(흥사단 LA지부), 임종현 대표, Chad Keller(헤리티지 스마트 역사보존 컨설팅), 강임산 소장(국외소재문화재재단 미국사무소) - (AURI) 이규철, 손은신

4) 주요 일정

일 자	현지시간	출발지	도착지	일 정	비고
7/8(토)	06:00-08:00 (2h)	세종	인천	공항이동	
	10:25-11:15 (13h 50m)	인천 (ICN)	워싱턴 (IAD)	출국	인천공항 대한항공(KE093)
	11:15-18:00	워싱턴DC		숙소 이동	
7/9(일)	09:00-16:00	워싱턴DC	<p>[현장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셔널 몰 내 국외사적지 답사 :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프리어 갤러리 한국실 <p>[현장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셔널 몰 내 공유유산 사례 답사 : German-American Friendship Garden, National Museum of African-American History and Culture 		
	16:00-19:00		<p>[현장답사 및 자문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싱턴 국외사적지 답사 및 미팅 : 주미대한제국공사관 		
7/10(월)	08:00~20:00	워싱턴DC- 필라델피아		<p>[현장답사 및 자문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라델피아 국외사적지 답사 및 미팅 : 서재필기념관, 리틀극장, 성삼위교회, 한국통신부 터, 신앙과 자유 디스커버리 센터 	
7/11(화)	09:00-14:00	워싱턴DC		<p>[현장답사 및 자문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싱턴 시외 국외사적지 답사 : 주미대한민국대사관저, 아메리칸대학교 왕벚나무와 한국정원 	
	15:00-19:00	워싱턴DC		<p>[현장답사 및 자문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싱턴 국외사적지 답사 : 주미대한민국대사관(현), 워싱턴 한국문화원, 주미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 및 서재필 동상 	
7/12(수)	06:00-07:00	워싱턴DC		공항이동	
	09:15-11:41 (05h 26m)	워싱턴 (DCA)	LA (LAX)	이동(국내선)	워싱턴 DCA 공항 알래스카항공(AS005)
	12:00-18:00	LA		<p>숙소 이동</p> <p>[현장 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한인타운 내 국외사적지 답사 : 김영옥중학교, Wilshire/Western/Alfred Hoyun Song Station, 다울정 	

7/13(목)	09:00-13:00	LA		[자문회의] - LA 내 이민유산 관련 미팅 : Ken Bernstein, Christina Park (LA 도시계획과 역사자원팀)	
	13:00-18:00			[현장답사] - LA 내 공유유산 사례 답사 및 미팅 : Chinese-American Museum, Little Tokyo, Japanese-American National Museum	
7/14(금)	08:00-14:00	LA		[현장답사 및 자문회의] - LA 내 국외사적지 답사 및 미팅 (2) : 흥사단소,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도산 안창호 광장, 대한민국민회기념관, USC한국학연구소	
	14:00-17:00			[현장답사] - 해외유산 수집 및 공유유산 사례 답사 : Getty Villa Museum	
	17:00-21:00			[자문회의] - 흥사단소 및 캘리포니아 한인 국외사적지 조사·연구 자문 : 차만재(USC Fresno 명예교수)	
7/15(토)	09:00-17:00	LA-리버사이드		[현장답사 및 자문회의] - 리버사이드 국외사적지 답사 및 자문 : 도산 안창호 동상, 파차파 캠프 터 - 일본 관련 공유유산 사례 답사 : Harada House	
	17:00-20:00	LA		[현장답사] - LA 외곽 San Pedro 국외사적지 답사 : 한미 우정의 종	
7/16(일)	08:00-12:30	LA		귀국준비 및 이동	
	12:30-17:20 (12h 50m)	LA (LAX)	인천 (ICN)	귀국	대한항공 (KE018)
7/17(월)	17:20	인천		귀국	인천공항
	17:20-22:00	인천	세종	세종 이동	

2. 미국 내 국외사적지 활용·관리 현황 조사

1) 워싱턴 D.C.

□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Korean War Veterans Memorial) 현황 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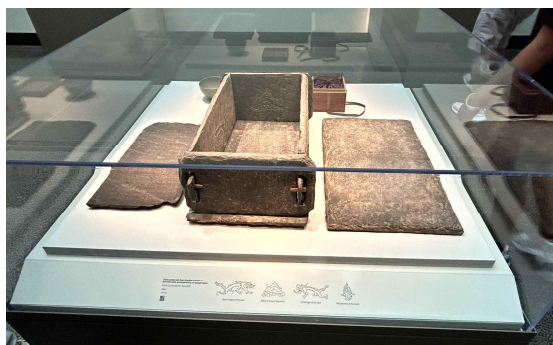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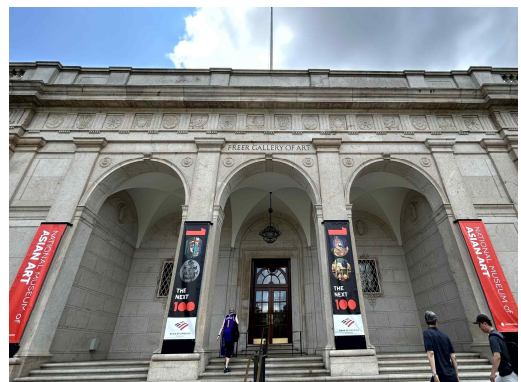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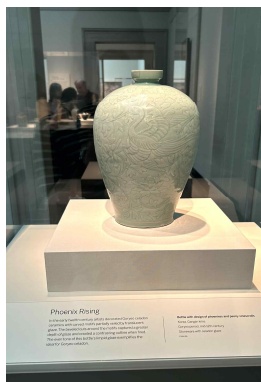
- 일시 : 2023년 7월 9일(일) 09:00 – 10:00
- 장소 : 워싱턴 D.C. National Mall 내 (900 Ohio Dr SW, Washington, DC 20024)
- 참석자 : (AURI) 이규철 연구위원, 손은신 부연구위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강임산 소장
- 주요 내용
 - 한국전쟁 참전 미군을 기념하기 위해 1995년 조성, 완공식에는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미 클린턴 대통령 참석
 - 링컨 메모리얼에서 바라볼 때 우측에 위치하며, 반대쪽 좌측에는 베트남전 참전용사 메모리얼 위치
 -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유공자인 조각가 Frank Gaylord가 19명의 미군 조각상 제작을 담당
 - 2016년 추가로 전사자 명단을 새기기 위한 추모의 벽(wall of remembrance) 건립 법안이 통과, 국가보훈처 지원 및 한국전참전용사추모재단(KWVMF)의 건립 추진에 따라 2022년 7월 27일 전사자 명단 4만여 명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의 벽이 건립되었으며, 한국 국적 군인 등 미국 외 국적의 전사자 이름이 다수 포함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 및 기념공원 (출처: AURI 촬영)
7/9, Washington D.C. (직접 촬영)

□ 프리어 갤러리 내 한국실 현황 답사

- 일시 : 2023년 7월 9일(일) 10:00 – 11:00
- 장소 : Smithsonian's National Museum of Asian Art 내 Freer Gallery
(105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004)
- 참석자 : (AURI) 이규철 연구위원, 손은신 부연구위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강임산 소장
- 주요 내용
 - 스미소니언 국립 아시안 미술관은 프리어 갤러리(Freer Gallery of Art)와 아서 M. 새클러 갤러리(Arthur M. Sackler Gallery) 2개 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 1993년 개설된 한국실은 의사이자 외교관이었던 Horace Newton Allen이 1884년부터 1905년까지 서울에 거주하면서 발견하거나 구매한 유물을 Charles Lang Freer가 1907년 구매한 후 기증한 컬렉션으로, 고려청자와 사신이 그려진 석관 등 고려시대 유물이 주로 전시됨
 - 한국실의 규모는 일본실 및 중국실에 비하여 작은 편이나 프리어 갤러리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전시된 Peacock Room의 바로 옆에 위치하며, 해당 층은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이슬람 등 아시아 미술 컬렉션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프리어 갤러리 내 한국실 (출처: AURI 촬영)
7/9, Smithsonian's National Museum of Asian Art, Washington D.C. (직접 촬영)

□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운영·관리 현황 답사 및 자문회의

- 일시 : 2023년 7월 9일(일) 16:00 - 19:00
- 장소 : 주미대한제국공사관 (1500 13th St NW, Washington, DC 20005)
- 참석자 : (AURI) 이규철 연구위원, 손은신 부연구위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강임산 소장, 조행리·정정아·조수빈·원혜신 주임
- 주요 내용
 -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건물은 미국 해군 출신 정치인 및 외교관인 Seth L. Phelps의 저택으로 1877년 건립
 - 공사관은 1889년 피셔옥에서 현재의 건물로 이전(당시 주미조선공사관), 1897년 대한제국 선포에 따라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으로 명칭 변경,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 강탈 이전까지 16년간 한국 외교의 주요 공간으로 사용됨
 - 1910년 한일 강제병합 후 주미 일본대사 우치다 고사이가 공사관 건물을 5달러에 강제 매각한 이후 소유자가 지속적으로 변경되었으나, 건물의 형태는 비교적 원형에 가깝게 유지되었음
 - 1990년대 이후 재미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건물을 되찾고자 하는 논의가 시작되어 2003년부터 미주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공사관 건물 매입 논의가 본격화, 2012년 10월 문화재청과 문화유산국민신탁이 舊황실재산 긴급매입비를 통해 매입 및 인수
 - 문화재청은 매입 후 정밀 실측 및 조사, 복원·활용 설계를 거쳐 2018년 5월 House Museum 형식의 역사전시관으로 개관하여 일반에 공개
 - 매입 이후 건물 내·외부 원형 복원을 위해 공사관 운영 당시 기록 문서인 『주미내거안(駐美來去案)』에 수록된 공사관 수리 견적서와 『Demorest's Family Magazine』에 수록된 고해상도 사진 3장, 『The Evening Star』, 『The New York Daily Tribune』, 『The Puritan』, 『The Philadelphia Times』 등 신문·잡지에 수록된 사진 자료 및 기록을 근거 자료로 복원(상세 내용은 2019년 발행된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복원 보고서』 참고)
 - 현재 주미대한제국공사관 1층과 2층은 과거 모습을 재현하여, 접견실로서 객당과 식당, 중앙홀(1층), 공사 집무실, 공사침실, 공관원 사무공간, 서재 등(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3층은 하나의 넓은 전시공간으로 운영 중
 - 1층 중앙홀에 세로로 걸려 있는 태극기는 과거 공사관 당시 찍힌 사진을 근거로 복원한 것이며, 대한제국 시기 사용되었던 초기 태극기의 모습으로 현재의 태극기 모습과 다소 차이가 있음
 - 외부 공간의 경우 공사관 건물과 이웃 건물 사이 작은 공간을 소규모의 한국정원으로 조성하여 관리
 - 관리사무실은 지하 1층에 위치하며,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미국사무소에서 사용.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운영·관리 및 미국 내 국외소재문화재 조사·관리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
 - 본 건물은 19세기 미국의 군인·정치인·외교관인 세스 펠프스가 건립하고 머물던 주택이자 19세기 대한제국의 외교 공관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미국과 한국 양국의 역사적 가치를 지니며, 공사관 건물 자체가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공사관이 위치한 로건 서클(Logan Circle) 일대가 1972년 역사지구(Historic District)로 지정되어 있음
 - 로건서클 역사지구 내 각 역사적 건축물의 소유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 커뮤니티가 구성되어 있으며, 정례적 모임을 통해 역사적 건축물의 관리 관련 주요 사항을 공동으로 논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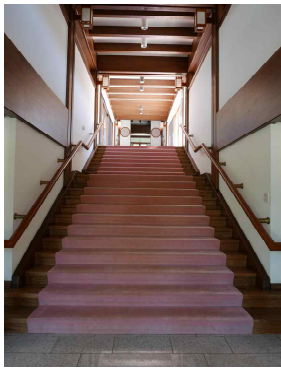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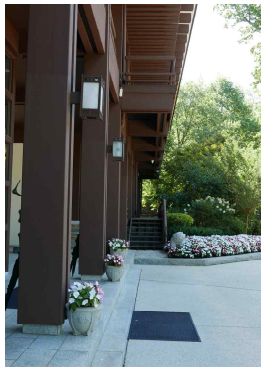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출처: AURI 촬영)
7/9, Washington D.C. (직접 촬영)

□ 주미대한민국대사관저 현황 답사

- 일시 : 2023년 7월 11일(화) 10:00 - 12:00
- 장소 : 주미대한민국대사관저 (4801 Glenbrook Rd NW, Washington, DC)
- 참석자 : (AURI) 이규철 연구위원, 손은신 부연구위원, (주미국대사관) 노진홍 실무관, (국외소재문화재단) 강임산 소장, 조행리·정정아 주임

*현재 주미 대사가 실제 거주 중인 주택으로, 사전 허가를 받아 국외소재문화재단 관계자 및 주미국대사관 관계자 동행하여 답사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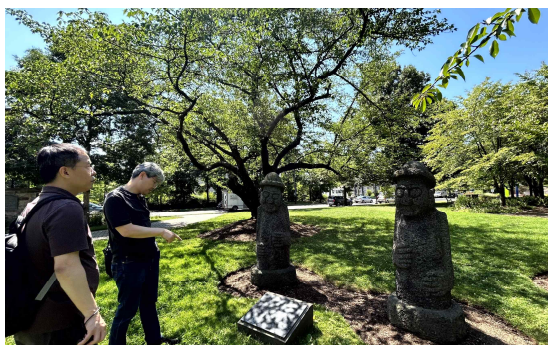
- 주요 내용
 - 1986년 건립되었으며 김수근 건축가 설계, 중정이 있는 ‘ㄷ’자 구조의 지하 1층, 지상 2층 철골조 및 목조 건물
 - 워싱턴 D.C. 외곽 북서쪽 주택가에 위치, 현재 주미대한민국대사 거주 중인 건물로 일반인의 출입은 제한되며, 각종 모임 및 외교 행사 시 현지 외빈과 대한민국에서 방문한 국민 등을 초청. 이에 지상 2층에는 외교 행사 및 모임을 위한 대규모 홀이 마련되어 있으며, 실내 곳곳에 한국 전통 공예품과 미술 작품 등이 전시
 - 중정은 별도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대신 부지 북쪽 동산을 이용하여 한국 전통 정원이 조성되어 있음. 주택 및 정원 관리는 현지에서 관련 인력을 고용하여 수행
 - 대사관저 건축물의 경우 김수근 건축가 설계 작품으로 건축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추후 한국 전통 건축양식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 지붕 등 일부 복원 및 보수 작업에 대한 계획 수립 중



주미대한민국대사관저 (출처: AURI 촬영)
7/11, Washington D.C. (직접 촬영)

□ 아메리칸대학교 왕벚나무와 한국정원 현황 답사

- 일시 : 2023년 7월 11일(화) 12:00 - 13:00
- 장소 : 아메리칸대학교 내 (East Quad Building, Washington, DC 20016)
- 참석자 : (AURI) 이규철 연구위원, 손은신 부연구위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강임산 소장, 조행리·정정아 주임
- 주요 내용
 - 1943년 주미외교위원부와 한미협회, 한국기독교친우회 주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24주년 경축행사 당시 이승만과 Paul F. Douglass 아메리칸 대학 총장 등이 한국의 독립과 민주주의의 실현을 염원하는 의미에서 한국산 왕벚나무(Korean Cherry Tree) 4그루를 식수 (해당 내용은 'Korean Cherry Trees' 표지석에 기록)
 - 이후 2011년 4월 25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왕벚나무 주위 공간에 제주 돌하르방과 한국 식물로 한국 정원 조성 (돌하르방은 2011년 2월 28일 정원 조성보다 앞서 먼저 조성됨)
 - 1943년 식수된 왕벚나무는 현재 3그루만 확인 가능하며, 새로 식수된 왕벚나무는 2011년 4월 25일 한덕수 주미대사와 Cornelius M. Kerwin 아메리칸 대학 총장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칸 대학 간 교류와 신규 한국 정원 조성을 기념하기 위해 식수 (해당 내용이 안내판에 기록되어 있음)
 - 이외에도 제주 돌하르방에 대한 간략한 안내문과 아메리칸 대학 출신으로 한국 정원 조성을 후원한 현대성우 홀딩스 정몽용 회장 관련 표지석 등이 조성되어 있음. 그러나 한국정원임을 알리는 표시나 정원의 경계 등이 분명하게 구분되지는 않으며, 구글 맵에서는 'Korean Cherry Trees'로만 위치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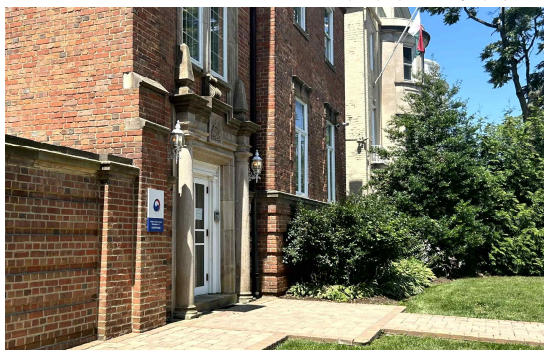
아메리칸대학교 왕벚나무와 한국정원 (출처: AURI 촬영)
7/11, Washington D.C. (직접 촬영)

□ 주미대한민국대사관(현재) 및 워싱턴 한국문화원(2번째 대사관) 현황 답사

- 일시 : 2023년 7월 11일(화) 15:00~16:00
- 장소 : 주미대한민국대사관 (245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워싱턴 한국문화원 (237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 참석자 : (AURI) 이규철 연구위원, 손은신 부연구위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강임산 소장,
조행리·정정아·조수빈·원혜신 주임
- 주요 내용
 - **(주미대한민국대사관)** 1992년 14대 현홍주 주미대사부터 현재까지 사용 중인 외교 공관으로, 본래 주미캐나다대사관 건물이었으나 1990년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매입하여 현재 대사관으로 사용 중인 건물임. 건물은 1964년 건립되었으나 주요한 역사적·건축적 의미를 지니지는 않음
 - 단, 대사관이 위치한 Massachusetts Avenue NW는 각국의 대사관들이 모여 있는 ‘Embassy Row’로 5월에는 대사관 오픈하우스 등이 개최되는 ‘Passport DC’ 행사가 정기적으로 개최됨
 - **(워싱턴 한국문화원)** 1973년 9대 함병춘 주미대사부터 1992년까지 사용한 두 번째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워싱턴 한국문화원으로 이용 중
 - 1931년 건립된 건물로 약 100년 가까이 된 건축물이나, 당시 워싱턴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건축되던 형식의 주택이며 상당 부분 리모델링이 진행되어 원형을 유지한 건물로 보기는 어려움



주미대한민국대사관 (출처: AURI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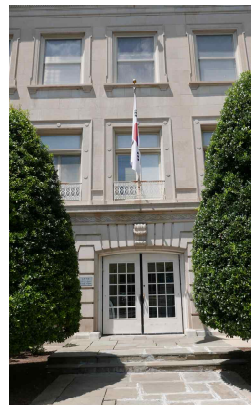


워싱턴 한국문화원 (출처: AURI 촬영)
7/11, Washington D.C. (직접 촬영)



□ 첫 주미대한민국대사관(현 워싱턴총영사부) 및 서재필 동상 현황 답사

- 일시 : 2023년 7월 11일(화) 16:00~17:00
- 장소 : 주미대한민국대사관 워싱턴총영사부 (232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 참석자 : (AURI) 이규철 연구위원, 손은신 부연구위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강임산 소장, 조행리·정정아·조수빈·원혜신 주임
- 주요 내용
 -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설치된 대한민국 최초의 대사관으로, 1949년 3월 설치
 - 대한민국 정부에서 1949년 7월 매입하여 초대 주미대사 장면부터 8대 김동조 주미대사까지 사용하였고, 현재는 주미대한민국대사관에서 여권 및 비자 발급 등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영사부 건물로 사용
 - 1949년부터 현재까지 가장 오래 사용하고 있는 미국 내 한국 외교 공관으로 워싱턴 DC의 문화재급 건물(historic building)로 간주되고 있으며, 후면에는 교민 등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등이 배치되어 있음
 - 2008년에는 현 영사부 건물 입구에 독립운동가 서재필 동상이 건립됨. 서재필은 미국 내 한인 중 첫 시민권자라는 점에서 미국에서 주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며 이는 한국 최초의 대사관으로서 건물의 의미와도 부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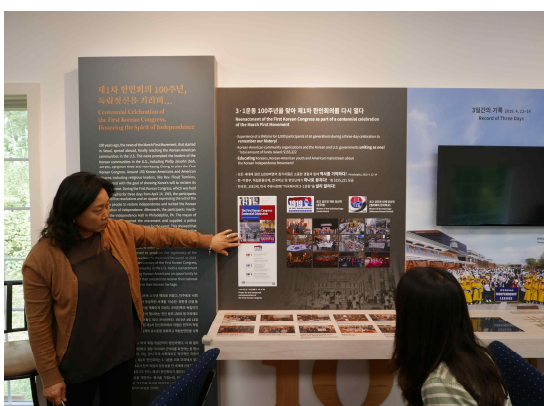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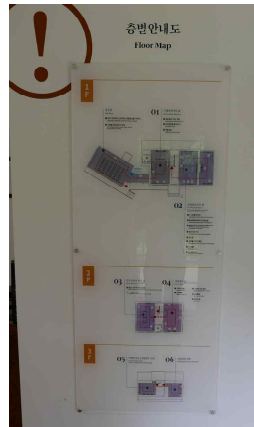


첫 주미대한민국대사관 및 서재필 동상 (출처: AURI 촬영)
7/11, Washington D.C. (직접 촬영)

2) 필라델피아

□ 서재필기념관(Philip Jaisohn Memorial House) 운영관리 현황 답사 및 자문회의

- 일시 : 2023년 7월 10일(월) 10:30 - 13:30
- 장소 : 서재필기념관 (100 E Lincoln St, Media, PA 19063)
- 참석자 : (AURI) 이규철 연구위원, 손은신 부연구위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강임산 소장, (서재필기념재단) 최정수 이사장, 서경희 이사
- 주요 내용
 - 1925년부터 1984년까지 독립운동가 서재필과 그의 가족이 살았던 주택을 개조, 1990년 11월 24일 서재필기념관으로 단장 및 개관하여 운영, 필라델피아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미디어(Media) 시 위치
 - 서재필은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 의사이며 첫 한인 미국 시민권자로 1951년 현 위치의 주택에서 노후를 보내고 세상을 떠났으며, 서재필 사후에는 미국에서 결혼한 아내인 뮤리엘 암스트롱(Muriel Armstrong)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딸 뮤리엘 제이슨(Muriel Jaisohn)이 살았고 이후 장녀인 스테파니 제이슨 보이드(Stephanie Jaisohn Boyd)도 함께 본 주택에서 여생을 보냄. 이후 자녀들이 미디어(Media) 시에 녹지를 기증하면서 주택 주변에 녹지와 정원이 조성되었고 미디어 시의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음
 - 기념관은 하우스 뮤지엄 규모로, 기존 주택의 1층과 2층, 3층이 모두 전시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본관과 연결된 별관 건물은 교육 및 소규모 세미나 장소 공간으로 운영됨. 별도의 건물 1동은 관리사무소로 이용
 - 2004년 한국 독립기념관 연계 및 지원 사업으로 기념관 전시 콘텐츠를 구성하였으며, 주로 최초의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을 발간한 언론인으로서의 서재필 및 최초의 미국 내 한인 의사로서의 서재필, 미국 내 한인 1호 시민권자로서의 서재필과 관련된 역사 콘텐츠가 전시되어 있음
 - 현재 서재필기념관은 1975년 설립된 미국의 서재필기념재단(Jaisohn Center)에서 관리. 서재필기념재단은 미국 내 첫 한국인 의사였던 서재필을 기념하여 필라델피아 지역 8명의 의사들이 당시 의료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던 재미 한인 대상 의료봉사 등을 수행하기 시작하며 설립. 현재까지도 한인 의사들을 주축으로 조직되어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수행 (이는 대한민국 내 서재필기념사업회 등이 『독립신문』을 창간한 서재필을 기념하며 언론인 중심으로 구성된 것과는 차이를 보임)
 - 서재필기념재단(Jaisohn Center)은 의료센터(Medical Center), 홈 헬스케어(Home Health Care), 홈케어(Home Care), AAPI Senior Center, Mental Health Counseling, Health Insurance Services, Human/Social & Culture Services, Advocacy & Leadership Development 등의 기관을 운영하며, 서재필기념관 또한 산하 운영 기관 중 하나임
 - 재미한인 2세 및 3세를 대상으로 한국 역사 관련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거주 한인들이 독립 정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등과도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개최
 - 2019년에는 미국의 3.1운동인 1919년 4월 14일 제1차 한인회의가 필라델피아 리틀극장에서 개최된 지 100주년을 기념, 당시 서재필이 국내 3.1운동 소식을 접한 후 미국에서 활동 중이던 이승만, 정한경 등과 함께 3일간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태극기를 들고 시가행진을 벌였던 독립운동 활동을 재현하는 행사를 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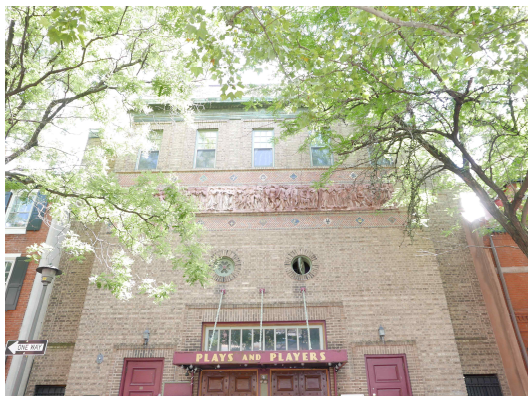
서재필기념관 (출처: AURI 촬영)
7/10, Media, PA. (직접 촬영)

□ 리틀 극장 현황 답사

- 일시 : 2023년 7월 11일(화) 15:00~15:30
- 장소 : Plays and Players Theater (1714 Delancey Pl, Philadelphia, PA 19103)
- 참석자 : (AURI) 이규철 연구위원, 손은신 부연구위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강임산 소장, (서재필기념재단) 서경희 이사
- 주요 내용
 - 3.1운동의 영향으로 미국에서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제1차 한인회의가 개최된 곳으로, 서재필이 당시 미국에서 활동 중이던 이승만, 정한경과 함께 개최. 한인 150여 명이 참석하여 태극기를 들고 필라델피아 시내 미국 독립기념관까지 시가행진을 하며 독립의 열망을 알린 시작 장소로서 역사적 의미를 지님
 - 리틀 극장은 소규모 극장으로 원형은 잘 보존된 상태라 볼 수 있음. 현재는 Plays and Players 극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공연이 없는 경우 미개방. 2층 벽면에는 부조가 조각되어 있으며 3층은 일반 주택으로 사용
 - 서재필 기념재단은 2001년 리틀극장 건물 벽면에 제1차 한인회의 개최지임을 안내하는 동판을 부착하였고, 2009년 제1차 한인회의 개최 90주년 기념식, 2019년 100주년 기념식 및 시가행진 등을 개최



2019년 제1차 한인회의 100주년 기념식 당시 리틀 극장 (출처: 서재필기념재단)
2019/4/14, Philadelphia, PA. (서재필기념재단 제공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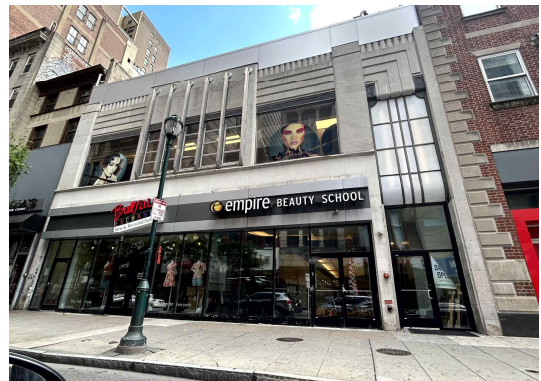
리틀 극장 (출처: AURI 촬영)
7/10, Philadelphia, PA. (직접 촬영)

□ 성삼위교회 및 한국통신부 터 현황 답사

- 일시 : 2023년 7월 10일(월) 15:30~16:00
- 장소 : The Church of the Holy Trinity (1714 Delancey Pl, Philadelphia, PA 19103),
한국통신부 터 (1528 Chestnut St, Philadelphia, PA 19102, 39°57'03.6"N 75°10'00.3"W)
- 참석자 : (AURI) 이규철 연구위원, 손은신 부연구위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강임산 소장,
(서재필기념재단) 서경희 이사
- 주요 내용
 - **(성삼위교회)** 1919년 제1차 한인회의 이후 서재필은 Floyd W. Tomkins 목사와 함께 미국 전역 21곳에 한국 친우회를 조직하였는데, 당시 Tomkins 목사가 목회 중이던 필라델피아 시내의 성삼위 교회에서 필라델피아 한국친우회 첫 총회가 개최. 이후로도 한국 독립 관련 대중 집회 장소로 이용됨. 2019년 한인회의 100주년 기념식 당시 리틀 극장과 함께 기념식 장소로 이용
 - **(한국통신부 터)** 1919년 제1차 한인회의 이후 서재필이 한국 독립 문제를 지속적으로 선전하기 위해 4월 말 경 설립하여 영문 월간지 『Korea Review』 등을 발행한 곳. 1919년 9월 이승만 설립 구미위원부 산하로 편입되고 1922년 『Korea Review』의 발행이 중단되며 한국통신부의 활동이 중단되면서 사라짐. 현재는 화장품 상점 등이 들어서 있어, 기존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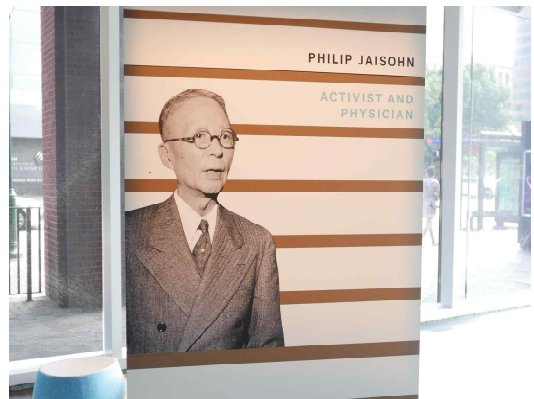
2019년 제1차 한인회의 100주년 기념식 당시 성삼위 교회 (출처: 서재필기념재단)
2019/4/14, Philadelphia, PA. (서재필기념재단 제공 자료)



(좌) 성삼위 교회, (우) 한국통신부 터(현재 화장품가게로 이용) (출처: AURI 촬영)
7/10, Philadelphia, PA. (직접 촬영)

□ 신앙과 자유 디스커버리 센터 현황 답사

- 일시 : 2023년 7월 10일(월) 16:00~17:30
- 장소 : Faith and Liberty Discovery Center (101 N Independence Mall E, Philadelphia, PA 19106)
- 참석자 : (AURI) 이규철 연구위원, 손은신 부연구위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강임산 소장, (서재필기념재단) 서경희 이사
- 주요 내용
 - 신앙과 자유 디스커버리 센터(Faith and Liberty Discovery Center, FLDC)는 2020년 미국 성경협회(American Bible Society)가 설립한 박물관으로, 미국의 건국 초기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여한 초기 청교도 정신을 소개. 미국 독립선언문이 승인된 미국 독립기념관(Independence Hall) 및 기념공원 앞에 위치
 - 본 박물관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적 장소이자 세계유산인 필라델피아 미국 독립기념관 및 기념공원 앞에 위치하며, 개인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 방문자가 관심 있는 콘텐츠 내용을 태그(tag)하면 해당 QR코드로 접속하여 방문 후에도 전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문자 인터랙티브형 전시 방식을 제공하고 있어 미국 학생들의 수학여행 방문 코스 중 하나로 이용되고 있음
 - 본 박물관에는 Abraham Lincoln, Billy Graham, Martin Luther King, JR. 등과 함께 서재필이 Philip Jaisohn이라는 미국 이름으로 미국의 기독교적 정신을 보여주는 주요 인물 중 1인으로 소개되어 있음. 이에 추후 관련 사실을 인지한 서재필기념재단은 2023년 2월 FLDC와 업무협약(MOU) 체결, 협력 관계를 유지



신앙과 자유 디스커버리 센터 (출처: AURI 촬영)
7/10, Philadelphia, PA. (직접 촬영)

3) 로스앤젤레스(LA)

□ 김영옥중학교 및 Alfred Hoyun Song Station 안내판 현황 답사

- 일시 : 2023년 7월 12일(수) 14:00 - 15:30
- 장소 : Young Oak Kim Academy (615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Wilshire/Western Station 앞 안내판 (377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05)
- 참석자 : (AURI) 이규철 연구위원, 손은신 부연구위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강임산 소장
- 주요 내용
 - **(김영옥중학교)** 김영옥(Young Oak Kim, 1919-2005)은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승전을 거둔 최초의 아시아계 미군 대령으로, 독립운동가 김순권의 아들이며 LA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임. 미국·프랑스·이탈리아·한국 정부에서 무공훈장을 받았고 제대 후에는 전쟁고아와 젊은이를 돕는 자선봉사 활동을 수행. 2005년 하와이 국립묘지에 안장됨
 - 미 정부는 김영옥의 무공과 인도주의 정신을 기려 2009년 LA에 설립된 공립 중학교 교명을 Young Oak Kim Academy로 명명하였으며, 이는 미국에서 한국인의 이름을 딴 세 번째 학교임. 김영옥중학교는 STEM 분야(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를 중점적으로 교육
 - **(Wilshire/Western/Alfred Hoyun Song Station)** 알프레드 호연 송(Alfred Hoyun Song, 1919-2004)은 한국 이민자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의 후손으로 하와이에서 태어나 USC 대학에서 3개의 학위를 받았고, 한인 최초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아시아계 이민자 최초로 캘리포니아 주의원에 선출된 인물임
 - 2009년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월셔/웨스턴 역명에 알프레드 호연 송의 이름이 추가되었고, 2014년에는 역 출입구 북동쪽에 그를 기리는 기념 안내판이 설치됨. 해당 안내판에는 1968년 7월 27일 알프레드 호연 송의 상원의원 의회 연설문이 기재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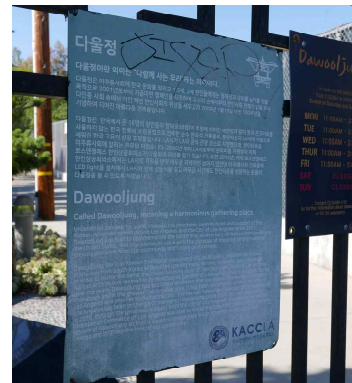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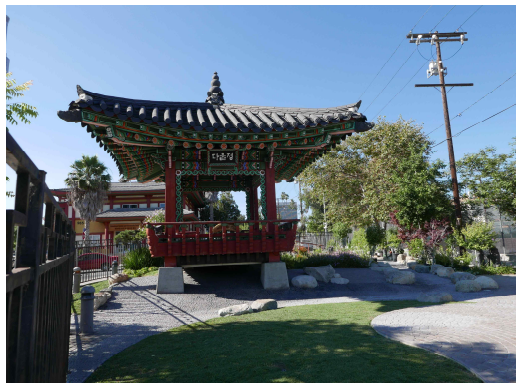
김영옥중학교(Young Oak Kim Academy) (출처: AURI 촬영)
7/12, LA. (직접 촬영)



Wilshire/Western/Alfred Hoyun Song 역 앞 기념 안내판 (출처: AURI 촬영)
7/12, LA. (직접 촬영)

□ 다울정(Korean Pavilion) 현황 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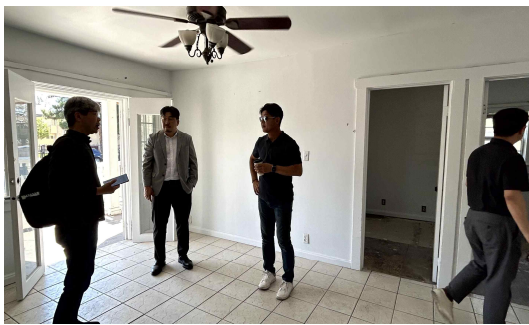
- 일시 : 2023년 7월 12일(수) 15:30 - 17:00
- 장소 : Korean Pavilion (1000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6)
- 참석자 : (AURI) 이규철 연구위원, 손은신 부연구위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강임산 소장
- 주요 내용
 - 다울정은 미국 사회에 한국 문화를 알리고 이민 100년을 기념하고자 2001년부터 한인사회에서 기금을 마련, 2016년 1월 13일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여 세운 한국 전통 양식의 정자
 - 한국 출신의 전통건축가 및 장인 16명이 미국 현지에서 전통 목조 조립공법으로 건축하였으며, 2006년부터 LA시에서 관리비를 지원받아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에서 관리·운영함
 - 월-금 오전 11시~오후 3시까지 운영하며 주말에는 미운영, 흡리스 점거 또는 기물 파손의 위험을 막기 위해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활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최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울정 앞에 위치한 한인타운 노인 및 커뮤니티 센터(Koreatown Senior and Community Center)의 휴식 및 야외 프로그램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 논의 중(한국일보, 2023/07/28 기사 참고)
 - 2016년 조성된 신축 건물로 국외사적지로서 유의미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한국 전통 건축양식으로 조성되었으며 한인타운 내 조성된 공공한옥이라는 점에서 전통 한옥의 보수·정비 및 활용을 위한 모니터링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울정(Korean Pavilion) (출처: AURI 촬영)
7/12, LA. (직접 촬영)

□ 홍사단소 현황 답사 및 운영·관리 현황 자문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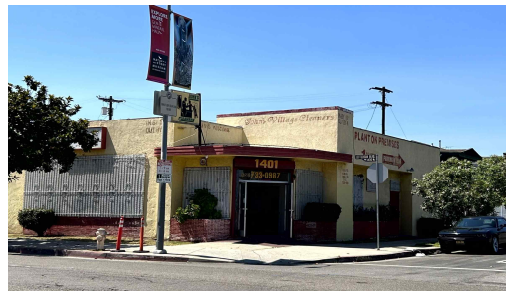
- 일시 : 2023년 7월 14일(금) 08:30 - 10:00
- 장소 : 홍사단소 (3421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07)
- 참석자 : (AURI) 이규철 연구위원, 손은신 부연구위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강임산 소장,
(헤리티지 스마트 역사보존 컨설팅) 임종현 대표, Chad Keller
(홍사단 LA지부) 이준학 지부장, Kevin Kim 대표(Zip8949, 부동산 관리 에이전트)
- 주요 내용
 - 홍사단이란 도산 안창호가 191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민족 부흥을 위해 창립한 비정치적 한인 단체로, 1914년 안창호가 LA로 이주하면서 본부도 함께 옮겨 오게 됨. 현재 홍사단 조직은 대한민국 25개지부와 미국 및 캐나다 9개 지부로 구성됨
 - LA 초창기에는 안창호가 가족과 지내던 주택을 홍사단 본부(홍사단소)로 사용하였다가, 1935년 단우들의 성금으로 2층 주택을 매입하여 본 홍사단소를 마련함. 이후 1948년 홍사단 본부가 국내로 옮겨가고 LA 홍사단소 건물이 운영 상 어려움에 따라 1978년 매각된 이후에는 미국인 소유의 임대주택으로 이용됨
 - 최근 USC 대학 캠퍼스 확장에 따른 주변 개발에 따라 현지 부동산 개발회사에서 철거 후 재개발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철거를 막기 위해 홍사단 등 주요 한인 단체를 중심으로 홍사단소를 LA 시의 Historic-cultural monument(사적)으로 지정 신청, 이후 공청회를 거치며 2023년 2월 28일 LA 시의회에서 사적으로 지정됨
 - 사적지 지정 과정에서 소유자인 부동산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에 매입 제안, 이에 2023년 2월 국가보훈처에서 매입 완료. 매입 비용은 미주 홍사단 지부에서 홍사단소 재매입을 위한 기금으로 모아온 비용으로 선지불한 후 차년도 국가보훈처의 예산으로 매입하여 반환(홍사단의 매입 기금 비용은 추후 다른 홍사단 관련 건물 등의 매입 비용으로 활용될 계획이나 현재는 미정)
 - LA 홍사단소 건물은 1910년 유행한 공예 양식을 차용해 지은 독특한 형식의 목조 주택이며, 이민 초기 한인의 독립운동은 물론 현재 한국계 미국인(Korean-American)과 관련된 초기 주요 역사적 건물이라는 점에서 미국에서 유의미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 LA 시 사적으로 지정됨
 - 매입 이후 건축물의 안정화 작업 및 복원 작업이 진행 중. 홍사단소는 옛 모습을 간직한 본관과 별관 등 2개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대주택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추가로 지어진 임시 창고와 차고 등은 복원 시 철거할 예정. 또한 매입 이후 건물 마당에 심겨 있던 야자수는 원형 복원을 위해 현재 제거된 상태임
 - 1978년 매각 이후 USC 대학생 대상 임대주택으로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건물 내부가 소규모 방으로 쪼개어져 있는 상태. 기록 및 사진, 원로 홍사단우 대상 인터뷰 내용 등을 토대로 건물 내부 구조의 복원 진행
 - 2023년 8월 15일 본 건물에서 홍사단소 LA시 사적 지정 제막식 및 국가보훈부의 홍사단소 활용 계획 방향 발표 행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추후 활용 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2025년 미주 독립운동 관련 국외사적지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임. 현재 홍사단소가 위치한 지역은 USC대학교 캠퍼스와 인접하고 멕시코계 이민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한인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지역 주민들도 이용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
 - 홍사단소는 매입 및 미국 내 사적 지정, 복원 및 리모델링 전체 과정에서 미국 내 한인의 지원은 물론 미국 내 다양한 관계자들의 협력이 함께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도 공유유산의 가치를 지니는 사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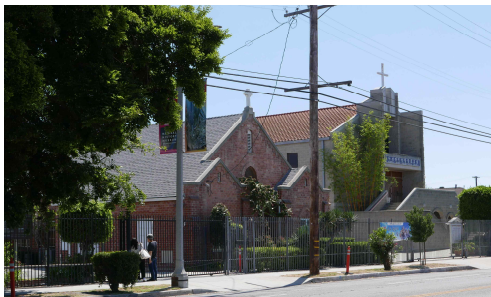
흥사단소 (출처: AURI 촬영)
7/14, LA. (직접 촬영)

□ 도산 안창호 광장 및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현황 답사

- 일시 : 2023년 7월 14일(금) 10:00-10:30
- 장소 :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1374 W Jefferson Blvd, Los Angeles, CA 90007)
- 참석자 : (AURI) 이규철 연구위원, 손은신 부연구위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강임산 소장, (헤리티지 스마트 역사보존 컨설팅) 임종현 대표, Chad Keller, (홍사단 LA지부) 이준학 지부장
- 주요 내용
 - **(도산 안창호 광장)** 도산 안창호 광장은 대한민국민회총회관 및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앞길을 1991년 LA시에서 도산 안창호 광장(Dosan Ahn Chang Ho Square)으로 명명한 공간을 말함
 - LA 시에는 이와 유사하게 2003년 한인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여 2002년 명명된 ‘도산 안창호 기념 인터체인지(Dosan Ahn Chang Ho Memorial Interchange)’, ‘2003년 명명된 도산 안창호 우체국(Dosan Ahn Chang Ho Post Office, 현재는 이전·철거되어 명패만 한인 단체에서 보관 중)’ 등이 있음
 - 도산 안창호 광장은 ‘Dosan Ahn Chang Ho Square’라는 명패만 작게 부착되어 있고 다른 기념물이나 흔적이 남아있지 않으며 역사적 사건의 장소가 아니므로 국외사적지로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없으나, 대한민국민회기념관 앞 공간이며 홍사단소와도 가깝다는 점에서 입지 상 의미와 기념적 의미를 지님
 -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Korean United Presbyterian Church)는 1906년 선교 목적으로 미국 본토에 설립된 최초의 한인 장로교회이며, 1938년 건립된 건물임. 현재는 1984년 신축한 본당과 함께 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교회는 독립운동을 후원하고 대한민국민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으며, 특히 교회 바로 옆에 위치한 대한민국민회 총회관을 1978년 매입/ 현재 대한민국민회기념재단과 함께 기념관의 운영을 맡고 있음



도산 안창호 광장 (출처: AURI 촬영)
7/14, LA. (직접 촬영)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출처: AURI 촬영)
7/14, LA. (직접 촬영)

□ 대한인국민회기념관 현황 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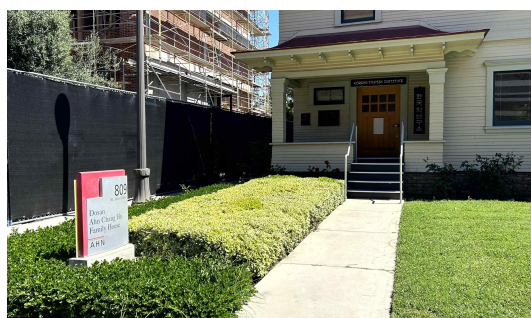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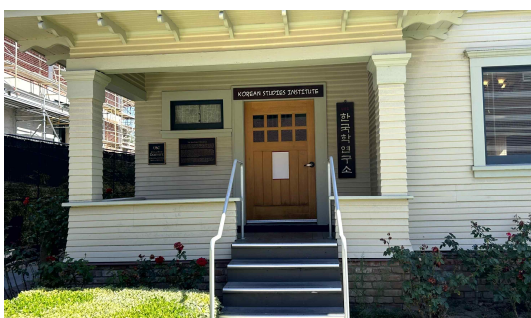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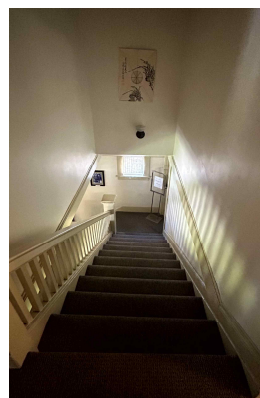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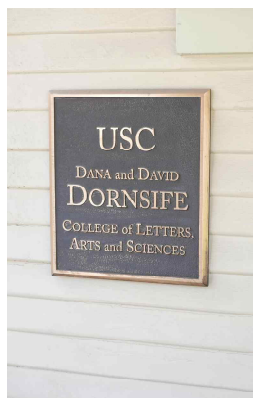
- 일시 : 2023년 7월 14일(금) 10:30-11:00
- 장소 : Korean National Association Memorial Foundation (1368 W Jefferson Blvd, Los Angeles)
- 참석자 : (AURI) 이규철 연구위원, 손은신 부연구위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강임산 소장, (헤리티지 스마트 역사보존 컨설팅) 임종현 대표, Chad Keller, (흥사단 LA지부) 이준학 지부장, (대한인국민회기념재단) Clara Won 이사장, 김혜자 재무이사 외 1인
- 주요 내용
 - 대한인국민회는 1910년 미주 지역의 여러 한인 단체가 연합하여 설립한 단체로, 본래 총회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 1921년 이승만 탈퇴 후 샌프란시스코 총회의 기능이 축소되었으나 1937년 김호, 김형순, 최진하 등을 주축으로 샌프란시스코 총회가 복원됨
 - 1938년 4월 17일 한인 동포들이 낸 성금으로 현재 위치의 LA 총회관(기념관 건물)을 신축하여 「신한민보」 발행처, 국어학교, 대한여자애국단 본부,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 본부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1978년 대한인국민회가 해체되면서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에 본 건물 매각
 - 1991년 LA 시 정부에서 대한민국 독립기념건물(Korean Independence Memorial Building)로 명명하고 사적(Historic-Cultural Monument) 제 548호로 지정함. 이후 2002년 11월 12일 로스앤젤레스 한인사회에서 '대한인국민회복원위원회'를 결성하였고 2003년 12월 9일 현재의 대한인국민회 기념관으로 개관함
 - 현재 기념관 내부는 국내 독립기념관의 지원을 받아 미주 한인의 이주와 정착, 국권회복운동, 대한인국민회 성립과 활동, 독립운동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2개의 전시실과, 대한인국민회에서 발행한 「신한민보」 인쇄 기기 등을 전시한 신한민보실, 대한인국민회 활동 내용을 보여주는 영상실 등으로 구성됨



대한인국민회기념관 (출처: AURI 촬영)
7/14, LA. (직접 촬영)

□ USC한국학연구소 현황 답사 및 운영·관리 자문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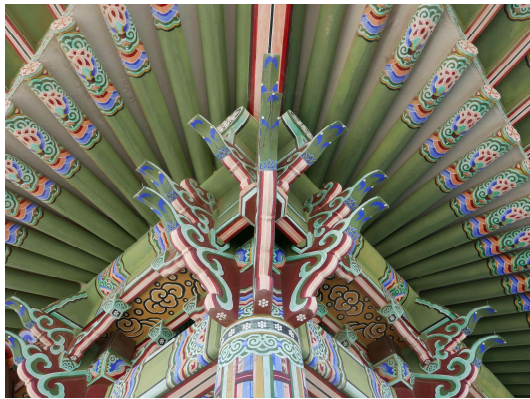
- 일시 : 2023년 7월 14일(금) 11:00 - 14:00
- 장소 : USC한국학연구소 (809 W 34th St, Los Angeles, CA 90089)
- 참석자 : (AURI) 이규철 연구위원, 손은신 부연구위원, (USC한국학연구소) Gloria Koo 부소장, (국외소재문화재단) 강임산 소장, (헤리티지 스마트 역사보존 컨설팅) 임종현 대표, Chad Keller, (홍사단LA지부) 이준학 지부장
- 주요 내용
 - USC한국학연구소는 안창호 가족(부인 이해련 여사, 자녀 안필립, 안필선, 안수산, 안수라, 안필영)이 1935년부터 1947년까지 살았던 주택이며, 당시 안창호는 상하이 및 국내에서 임시정부 활동 및 독립운동으로 가족과 헤어져 있었고 국내에서 1938년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지는 않았음. 단, 안창호-이해련 부부는 미국 내 첫 번째 한인 이민자 부부라는 점에서 미국 내 역사적 의미를 지님
 - 본래 이 주택은 현 위치가 아니라 한인타운 지역인 McKlintock Ave.에 위치하였으며, 당시 홍사단 관계자 및 대한민국민회, 지역 내 한인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1965년 USC 대학교 캠퍼스 부지 확장에 따라 USC 대학에서 주택을 구매한 후 공과대학 연구실로 사용. 이후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2004년 현재 위치로 건물을 통째로 이전한 후 2006년부터 한국학연구소로 이용 중
 - USC 한국학연구소는 주로 USC 대학 내 한국 관련 워크숍 및 특강 공간으로 이용되는데, 학부는 월 1회, 대학원은 주 1회 정도로 관련 강의·워크숍이 실시되며, 특히 대학원의 경우 논문 세미나 등의 공간으로도 사용됨. 또한 UCLA 동아시아 연구소, 미시간 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봄학기마다 컨퍼런스를 개최
 - 주요 연구주제 및 교육 주제는 한국 및 Asian-American과 관련된 주제로, 최근 학생들의 경우 K-pop과 영화 등을 비롯하여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 관련 주제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주로 진행 중
 - USC 동아시아 도서관에는 Korea Heritage Library가 있는데, 같은 이름의 소장처가 미국 내 여러 대학에 위치해 있으며 대학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자료를 소장. USC의 경우 미디어 콘텐츠 및 한인이민사와 관련된 자료가 주로 소장되어 있음
 - USC한국학 연구소의 설립은 2005년 UCLA 동아시아연구소 소장인 Ken Klein 교수가 추진한 한국 관련 프로그램 및 기금에서 출발, 2009년 현재 소장인 David Kang 부임하여 운영 중
 - 연구소 1층에 안창호 가족 관련 물품과 사진이 일부 전시되어 있기는 하나, USC한국학연구소의 역할은 전시보다는 USC 대학생 등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관련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특히 LA 지역의 경우 한국문화원이나 한인식당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한인 행사가 개최되고 있고 여러 국외사적지가 전시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 행사나 전시보다는 주로 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에 집중
 - 2004년 건물 이전 과정에서 한국학연구소로 기능이 전환되면서 LA 시 사적지로도 지정되었는데, 이는 안창호 가족 관련 거주에 대한 역사적 가치보다는 1900년대 초 당시 LA의 건축양식이 잘 남아있다는 점 (American Foursquare architectural style)에서, 추가적으로 안창호 부부가 처음으로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한 한인 부부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인정받은 것. 미국 내 사적지의 경우 주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대체로 입면 및 주요 구조만 변경되지 않으면 건물 사용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 등은 허용되는 편임



USC한국학연구소 (출처: AURI 촬영)
7/14, LA. (직접 촬영)

□ 한미 우정의 종 현황 답사

- 일시 : 2023년 7월 15일(토) 17:00~18:00
- 장소 : Korean Friendship Bell (3601 S Gaffey St, San Pedro, CA 90731)
- 참석자 : (AURI) 이규철 연구위원, 손은신 부연구위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강임산 소장, (헤리티지 스마트 역사보존 컨설팅) 임종현 대표, (홍사단LA지부) 이준학 지부장, (LA한국문화원) 권재우 사진작가
- 주요 내용
 - 한미 우정의 종은 1976년 미국 독립 200주년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정부에서 LA시에 선물한 종으로, LA 시 남부 San Pedro 바닷가 언덕 위에 위치하며, 전망이 매우 좋고 로스앤젤레스 항구와 롱비치 해변, 트럼프 재단의 회원제 골프장 등이 인접하여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명소에 위치하는 등 입지 여건이 매우 좋음
 - 우정의 종은 에밀레종으로 잘 알려진 '성덕대왕신종'을 복제하여 만든 것으로, 주석, 동, 금, 은, 인을 섞어 주조되었으며 높이 3.63m, 둘레 7.25m, 무게 17톤으로 종의 고리에는 용이, 종 둘레 네 곳에는 한·미의 자유와 독립,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여신이 새겨져 있음. 해당 내용이 기재된 안내비가 종각 앞에 영문 및 국문으로 세워져 있어 관련 내용을 방문자가 쉽게 알 수 있음
 - 종각으로 들어가는 공간 입구에는 안내비와 장승이 세워져 있고, 주변에는 무궁화가 식수되어 있음. 종각 현판에는 한글로 '우정의 종각' 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서희환 서예가가 쓴 것임
 - 종각 입구에는 한미 우정의 종 전용 주차장이 있으며, 한국 관련 전시관 건물이 방문자 센터와 함께 마련되어 있으나 현재는 운영하지 않음
 - 한미 우정의 종각에서는 미국 독립 기념일과 한국 광복절, 새해 전야 등에 타종 행사가 개최되며 이외 여러 한국 관련 행사가 이곳에서 개최됨. 1978년 LA 시의 역사문화기념물(Historic-Cultural Monument)로 지정
 - 단, 바람이 많이 부는 해안가 언덕 위에 위치하여 기와 등 부재가 파손되고 낙하하는 등의 위험 요인이 있어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보수가 필요하나 미국 현지에서는 전통건축 부재 및 장인 동원 등이 쉽지 않은 여건임. LA 한국문화원에서 관련 예산을 받아 과거 수리 작업을 수행한 바 있으나, 대체로 일회성 수리에 그침
 - 한미 우정의 종은 한-미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보여주는 유산이며, 미국 LA 시의 문화유산으로 1978년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점, 입지가 매우 좋아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으며 한국 관련 행사가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유유산 대상으로서 가치를 지닐 것으로 판단됨.
 - 단, 종각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속적 보전이 필요하며, 국내 등록문화재의 기준이 건립 50년이 지난 건조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현재 해당 연한이 충족되지 않아 국내 문화재로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잠정 목록으로서 중장기적인 모니터링 대상으로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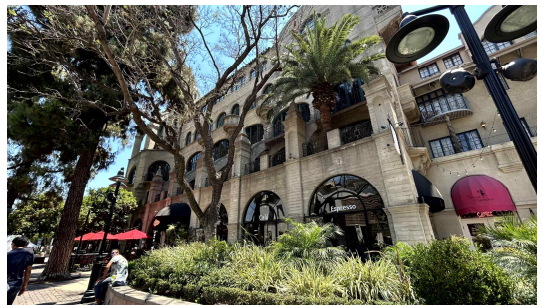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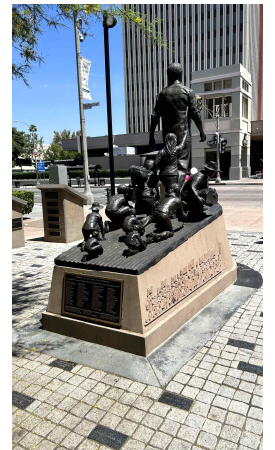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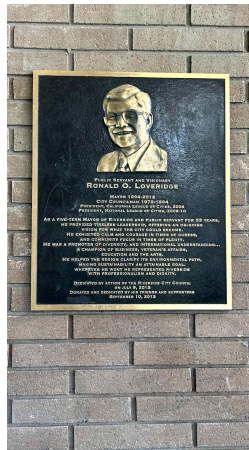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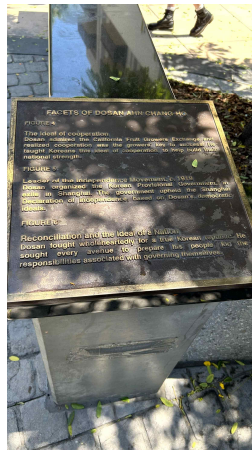


한미 우정의 종 (출처: AURI 촬영)
7/15, San Pedro, CA. (직접 촬영)

4) 리버사이드

□ 도산 안창호 동상(Dosan Ahn Chang-Ho Memorial) 현황 답사 및 자문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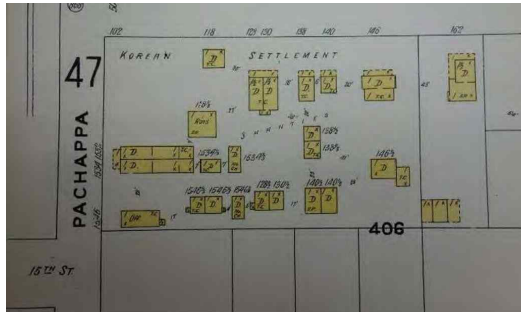
- 일시 : 2023년 7월 15일(토) 10:30 - 12:00
- 장소 : 리버사이드 시청 앞 광장 (3750 Main St, Riverside, CA 92501)
- 참석자 : (AURI) 이규철 연구위원, 손은신 부연구위원, (흥사단LA지부) 최창호 前지부장, 이준학 지부장,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강임산 소장, (헤리티지 스마트 역사보존 컨설팅) 임종현 대표
- 주요 내용
 - 도산 안창호 동상(Dosan Ahn Chang-Ho Memorial)은 2001년 한인사회의 성금으로 리버사이드 시청 광장에 조성된 것으로, 도산 안창호의 동상을 중심으로 관련 업적 등이 새겨진 동판 6점이 원형으로 배치된 형태임
 - 리버사이드 시청 광장에는 대한민국의 도산 안창호를 비롯하여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미국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멕시코계 미국 노동운동가 및 인권운동가인 세자르 차베스(Cesar Chavez), 리버사이드 출신으로 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훈장을 받은 멕시코계 미국인 이스마엘 빌레가스(Ysmael Villegas), 워싱턴 DC에서 리버사이드로 네이블 오렌지 나무 2그루를 이식하여 리버사이드 오렌지 산업의 선구자가 된 엘리자 티베츠(Eliza Tibbets) 등 6명의 동상이 세워져 있음
 - 리버사이드 시청 앞 광장에 안창호를 비롯한 노동 및 인권운동과 관련된 인물들의 동상이 세워진 것은, 1994년부터 2012년까지 리버사이드의 시장을 5회 역임하고 1979년부터 33년간 시의원 등 공무직에 종사한 리버사이드 시장 Ronald O. Loveridge의 다양성 포용 및 노동·인권 중심 정책 방향과 관련되어 있음
 - 안창호 동상 모습의 경우, 리버사이드 시 정부와 도산 유족들은 리버사이드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는 도산의 모습을 동상으로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동상 건립 주체인 리버사이드 도산기념사업회 측은 독립운동과 광복에 힘쓴 도산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정장에 성경책을 든 모습으로 제작하였고, 이는 세자르 차베스 동상이 노동 운동가로서 여러 노동자를 이끄는 모습으로 건립된 것과는 비교되는 부분이 있음 (2016년 이후 도산 유족의 의견이 반영되어 현재의 동상 모습을 이민 초기 오렌지 농장의 작업복 차림으로 교체 계획 수립 중)
 - 동상 및 동상을 원형으로 둘러싼 동판 6개는 김문기 조각가의 작품으로, 동판에는 도산 안창호가 오렌지 농장에서 오렌지를 따는 모습과 이민 초기 언어 및 미국 문화를 배우기 위해 미국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과 일시적으로 공부하던 모습, 한인들과 성경 및 영어를 공부하는 모습, 한인 이주 노동자들과 협동하여 일하는 모습, 독립운동 관련 모습, 대한민국의 광복에 대한 이상 등이 조각되어 있음
 - 본 동상 건립을 위해 도산안창호 기념사업회를 비롯하여 국가보훈처,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및 여러 한인 및 단체가 성금을 모아 건립하였으며, 기부자들의 명단은 동상을 둘러싼 벽에 새겨져 있음
 - 도산 안창호 동상은 비교적 최근인 2001년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문화유산이라 보기는 어려우나, 리버사이드 시청 앞 광장에 간디, 마틴 루터 킹을 비롯하여 동상이 세워진 주요 인물 6인에 안창호가 포함되며 6개 동상이 조성된 길은 리버사이드 시청에서 Mission Inn(Riverside 사적,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별장으로 수도원을 연상시키는 다문화 건축 스타일의 역사적 호텔)까지 이어지는 주요 동선이라는 점에서 입지 상 강점을 지님. 또한 미국 내에서 인권·노동운동가이자 선구자로서 도산 안창호의 업적을 인정한 기념비라는 점에서 유의미한 기념적 가치를 지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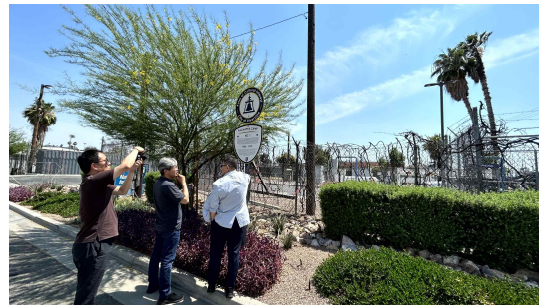
도산 안창호 동상 및 리버사이드 시청 광장 (출처: AURI 촬영)
7/15, Riverside, CA. (직접 촬영)

□ 파차파 캠프(Pachappa Camp) 터 현황 답사 및 자문회의

- 일시 : 2023년 7월 15일(토) 13:30 - 14:30
- 장소 : 파차파 캠프 터 (3096 Cottage St, Riverside, CA 92507)
- 참석자 : (AURI) 이규철 연구위원, 손은신 부연구위원, (흥사단LA지부) 최창호 前지부장, 이준학 지부장,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강임산 소장, (헤리티지 스마트 역사보존 컨설팅) 임종현 대표
- 주요 내용
 - 파차파 캠프(PACHAPPA CAMP)란 1905년 도산 안창호가 세운 리버사이드 코리아타운으로, 1905년부터 1918년까지 공식적으로 약 100여명의 한인들이 거주하였던 지역임. 이곳은 하와이를 제외한 미국 본토 내 첫 코리아타운으로, 현재 리버사이드 시의 역사적 관심지(point of cultural interest)로 지정되어 있음. 단, 현재는 역사적 건물의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고 관련 안내판만 부착되어 있음
 - 당시 리버사이드는 썬키스트 등 국제적인 과일 브랜드가 태동한 대규모 오렌지 재배 지역으로 187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대규모 오렌지 농장 운영을 위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함. 이에 자연스럽게 1903년 하와이의 이민자들이 이주해오면서 당시 주소 1532 Pachappa Avenue에 거주, 20여 채의 가옥이 판자촌으로 형성되었고 오렌지 농장 노동을 알선하는 노동소개소도 설립됨. 이 때 당시의 초기 리버사이드 코리아타운은 Pachappa Avenue에 위치하여 '파차파 캠프(Pachappa Camp)로 불림
 - 파차파 캠프 내에는 노동소개소와 함께 문화회관도 설립되었는데, 문화회관에서는 한인 결혼식, 돌 잔치, 예배, 세계, 영어 수업 등 각종 행사 등이 개최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1920년대 이후 한인들이 LA 등지로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소수만 남아 1930년대 소멸됨
 - 당시 도산 안창호 역시 리버사이드 오렌지 농장에서 노동자로 일하였고, 1904년 초 미국 농장주의 권유로 1905년 파차파 캠프 내 한인노동소개소를 설립한 것이 계기가 됨. 당시 리버사이드 코리아타운 및 한인 노동소개소는 오렌지를 미국 전역으로 실어나르던 철도역에서 도보로 10~15분 거리에 위치
 - 관련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으나, 일부 남아있는 사진과 기록, 전화번호부(1908년 리버사이드 시립도서관 소장 지도, 1906년 San Bernardino 지역 전화번호부) 등에서 당시 파차파 캠프의 간략한 지도와 주소, 전화번호 등을 일부 확인할 수 있음
 - 단, 현재는 파차파 캠프 관련 조사 및 연구가 부족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국내에 발간된 서적 중 UC 리버사이드 대학의 장태한 교수가 펴낸 「파차파 캠프, 미국 최초의 한인타운」에서는 초기 리버사이드 정착 한인 관련 기록과 리버사이드 시립 도서관 소장 지도, 당시 거주한 한인들과 관련된 신문 및 구술 기록 등을 일부 확인할 수 있음)
 - 현재 파차파 캠프 터 주변은 철도에 면한 부지로 주로 산업 시설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파차파 캠프 터 안내판이 부착된 해당 주소(3096 Cottage St, Riverside)는 SoCalGas라는 천연가스 회사가 위치하고 있음



파차파 캠프 관련 역사 사료: (좌) 파차파 캠프 지도(리버사이드시립도서관 소장, 1908),
(우) 전화번호부 내 한인노동소개소(San Bernardino 지역 전화번호부, 1906)
출처: <https://aapihistoryintheie.weebly.com/pachappa-camp.html>



파차파 캠프 터 (출처: AURI 촬영)
7/15, Riverside, CA. (직접 촬영)

3. 미국 이민유산 정책 추진 사례 조사

1) LA 시 이민유산 정책 추진 관련 관계자 면담

- 일시 : 2023년 7월 13일(목) 10:00 - 13:00
- 장소 : LA 시청 회의실 (Los Angeles City Hall, 200 N Spring St, Los Angeles, CA 90012)
- 참석자 : (AURI) 이규철 연구위원, 손은신 부연구위원, (LA시청 도시계획과) Ken Bernstein (Principal City Planner), Christina Park(City Planner),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강임산 소장, (헤리티지 스마트 역사보존 컨설팅) 임종현 대표, Chad Keller
- 주요 내용
 - LA 시 문화유산의 경우, 개별 유산은 Historic-Cultural Monument로 지정하며 구역 차원에서는 Historic District로 관리, 특히 도시 확장과 주택 문제(housing crisis)에 대응하여 문화유산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도시계획과(Department of City Planning)에 소속된 각 city planner들이 각 역사지구를 담당하여 관리
 - 흥사단소와 같이 특정 대상을 LA 시의 역사문화유산(Historic-Cultural Monument)으로 지정하는 경우, 도시계획과의 해당 구역 담당 city planner가 직접 보고서 작성 및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함. 문화유산 지정은 시의회의 5명 위원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장이 지정. 현재 LA 시 내 역사문화유산(Historic-Cultural Monuments, HCMs)으로 1,290개의 유산이 지정되어 있음
 -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각 역사지구를 Historic Preservation Overlay Zones(HPOZs)라 지칭하며, 이러한 구역의 경우 구역 내 외관과 건축물의 주요 구조 등을 보존하도록 함. 현재 LA 시에 35개 HPOZs 구역이 존재하며, 구역 내부의 역사적 자산(properties)은 약 21,000개소가 있음. 도시계획과에서는 구역별 preservation plan 및 design guideline을 작성하여 역사지구를 관리하며, 기본적으로 모든 역사지구에 적용되는 역사 보존 기준(Historic Preservation Standards) 또한 마련되어 있음
 - 역사문화유산 및 역사지구 내 부동산 문화유산에 대한 지원은 직접적인 예산 지원보다는 주로 세금 감면(tax reduction)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보수 및 수리, 보유세 관련된 여러 세금에 대하여 조건에 따라 20~80%까지 세금을 감면해주는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짐
 - 캘리포니아 주 내 도시들 중 LA는 가장 먼저 도시 전역 차원의 역사자산 기초조사를 수행한 도시로, 'Survey LA'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의 대표적 역사보존 연구기관인 LA Getty Foundation과 협력하여, LA 시 전역에 분포한 역사자산 기초조사를 수행(국내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또는 각 광역자치체에서 실시하고 AURI에서 시스템 관리 중인 건축자산 기초조사와 유사한 형식임)
 - 조사된 LA 시 전역의 역사 자산은 HistoricPlaces LA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도 형태로 유산의 유형, 주소, 지정 여부 및 간단한 조사 리포트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
 - 특히 LA 시에서 최근 역사유산 대상은 초기 주거지 개발과 관련된 역사, 문화예술 및 공예 관련사를 비롯하여 African-American, Asian-American, Jewish, Latino 등 이민자의 역사, 여성인권사, 또는 최근의 LGBT 관련 주제 등으로 확장되는 추세임, 이민유산이 초기 주택 건축양식의 측면에서, 흥사단소와 같이 한국 정부의 지원 및 LA 내 한인 단체의 지원 등을 통해 LA 시에서 사적으로 지정한 사례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사례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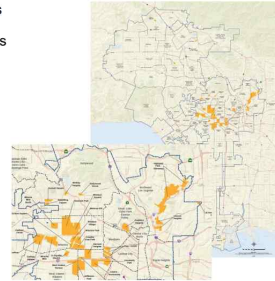
Cultural Heritage Commission

- OHR as professional staff to City's preservation commission
- Five-members, Mayoral appointed
- Recommends designation of City Historic-Cultural Monuments (landmarks)
- Reviews work on existing 1,290 HC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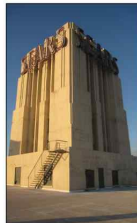
Historic Preservation Overlay Zones (HPOZs)

- HPOZs = Historic Districts
- Design Review of exteriors of structures
- 35 HPOZs, 21,000 properties



Mills Act Historical Property Contract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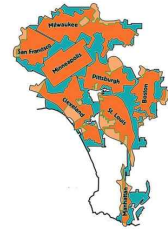
- City's major financial incentive for preservation
- State law: City approved in 1996
- Contract in force for 10 years; annual renewals
- Typical property tax reduction of 20-80%
- Historic Preservation Standa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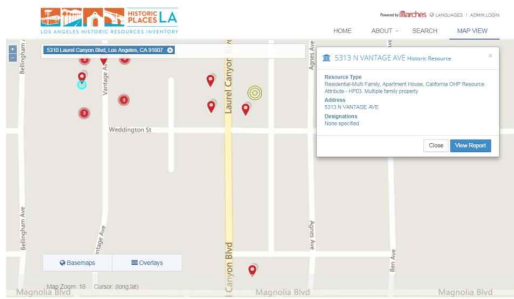
Sears Building, Boyle Heights

SurveyLA Los Angeles Historic Resources Survey

- Multi-year historic resources survey of Los Angeles
- Joint grant project of the City and the Getty Foundation
- Technical and advisory support from 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 Managed by the City Office of Historic Resources
- First citywide survey of Los Angeles
- Largest survey completed in the U.S.



Making the Survey Findings Available: HistoricPlaces LA



Citywide Historic Context Statement

Sample Themes:

- Early Residential Development
- Arts & Crafts Movement
- Air Raid Sirens and Civil Defense
- L.A. Modernism
- LGBT Civil Rights Movement
- Writers
- WWII Suburbanization
- Religion and Spirituality
- Programmatic Architecture
- Japanese Style Gardens
- Commercial Signs



LA 시 문화유산 보존 정책 설명 자료

출처: 7/13, LA 시 도시계획과 제공



LA 시청 공무원 면담 (출처: AURI 촬영)

7/13, LA 시청 회의실 (직접 촬영)

2) 흥사단소 및 캘리포니아 한인 국외사적지 관련 전문가 면담

- 일시 : 2023년 7월 14일(금) 17:00 - 21:00
- 장소 : LA 숙소 회의실 (Garden Suite Hotel, 68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5)
- 참석자 : (AURI) 이규철 연구위원, 손은신 부연구위원, (UC Fresno) 차만재 명예교수,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강임산 소장, (헤리티지 스마트 역사보존 컨설팅) 임종현 대표, Chad Keller, (흥사단 LA지부) 이준학 지부장, 박희준 회계사, (SBS International) 정문식 PD
- 주요 내용
 - **(면담자 약력)** 차만재 박사는 UC Fresno의 정치행정학과 명예교수이며 1955년부터 시행된 이승만 대통령의 한국 청년 조기 유학 지원 대상자로 1957년 도미, USC(남가주 대학)에서 국제정치 및 경제학 학사, 행정학 석사 및 박사를 거쳐 샌디에고, LA에서 1년간 교수 생활 후 1969년부터 UC Fresno에서 교수로 재직. 중가주 한인역사연구회의 연구회장을 맡고 있으며, Fresno 지역의 리들리 이민역사 발굴보존 사업 등을 수행
 - 차만재 박사는 USC 재학 중이던 유학 생활 당시 미국에서 거주 중이던 안창호 가족(부인 이혜련 여사 및 안필립)이 운영하던 문게이트(Moongate) 식당에서 일하며 안창호 가족 및 흥사단과 교류 시작, 현재 흥사단 LA 지부 단우이자 흥사단우 입단 면접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국가보훈부 매입 후 흥사단소의 복원 시까지 위탁관리를 수행하는 한미유산재단(Korean American Legacy Foundation) 이사장으로 위촉 예정(2023.8.15.)
※ 한미유산재단은 흥사단소 매입 이후 복원 과정에서 국가보훈부의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 위한 흥사단LA지부 관련 비영리단체로 차만재 교수가 이사장으로, 이준학 흥사단 LA지부장이 총무이사, 박희준 회계사가 재무이사, 국가보훈부에서 위촉 예정임 (2023년 8월 15일 위촉식 수행됨. The Korea Times, “이민 역사 담은 열린공간으로”, 2023.8.17. 기사 참조)
 - **(흥사단 소개)** 흥사단의 영문 명칭은 Young Korean Academy(YKA)로, 흥사단 입단을 원하는 경우 가입 신청 이후 1년간 예비 회원으로서 흥사단 수칙과 도산 안창호 등 한국 역사에 대한 공부 및 교육 등을 수행한 후, 내부 위원 면접을 통해 테스트를 통과하여야 정식 흥사단우로 가입 가능
 - 차만재 박사는 흥사단우 가입 테스트 면접위원이며, 흥사단우 가입 교육용 영문교본인 「Tell Me About the YKA(2018)」를 저술하기도 함
 - 현재 흥사단 LA 지부 유튜브 채널에는 도산 안창호의 막내아들인 랄프 안(Ralph Ahn)을 비롯하여 원로 단우인 차만재 단우, 이장훈 단우 등의 인터뷰 영상을 촬영하여 아카이빙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흥사단소 관련)** 국가보훈부에서 매입한 흥사단소는 1935년 단우들의 성금으로 마련한 주택으로, 본래 본부로 사용하던 Figueroa St.의 주택에 안창호 가족이 거주하였던 것과는 달리 현재 본부에 안창호 선생과 가족들이 직접 거주하지는 않음. 흥사단소 본부가 현재 건물로 이전하면서 안창호 가족들도 현재 USC한국학연구소 건물로 이주하여 거주함. 1935년 새로 마련된 현재의 흥사단소는 1층은 사무실 및 집회실, 2층은 당시 한인 유학생들을 위한 숙소로 사용되었음
 - **(미국 내 이민사 관련)** 일본 또는 중국 등 여타 동아시아 국가 이민자와 비교해볼 때, 한인 이민자들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압력이나 규제 등에서 다소 완화된 편이라 할 수 있음. 또한 한인의 이민이 시작된 시기는 남북 분단 이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북한에 거주 중인 이산가족의 경우 서로 만나거나 교류하기 어려운 것과 달리 미국에 거주 하는 한인은 상대적으로 교류가 가능하다는 특성도 지니고 있음

- 그러나 많은 재외교포 2세 혹은 3세가 그렇듯이, 재미한인 2세 및 3세 또한 한국어보다 영어가 익숙하며 문화 또한 미국의 문화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갖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흥사단처럼 초기 한인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한 정치 단체 또는 종교 단체 등이 일부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나, 구성원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젊은 한인 및 2-3세 교포들을 찾아보기는 어려움
- 이는 단지 Korean-American에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님. 미국은 기본적으로 다인종 국가이나 유럽계 백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가임. 또한 같은 아시아계라 하더라도 Japanese-American이나 Chinese-American의 이민이 배제되거나 일본계 미국인들이 강제 수용을 당했던 것과 달리 Korean-American의 역사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인도인 등 코카서스 인종의 경우 백인계통임에도 아시안 계열로 묶어 구분하는 등 인종 문제는 정치적으로 복잡한 배경과 맥락을 가지고 있음. 한편 미국의 원주민인 Native American에 대해서는 과거의 인디언 학살 등의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관련 역사를 새롭게 발굴하고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등 각 인종에 따른 정책이 다르며, 이 정책 또한 최근 100년간 꾸준히 변화를 겪어 옴
- 이러한 배경에서, 흥사단과 새로 매입한 흥사단소의 역할은 우선 도산 안창호의 정신과 한국의 역사, 특히 Korean-American으로서 정체성을 재미한인 2세 또는 3세 등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라 생각됨. 차만재 박사는 기존 흥사단에서 사용하던 면접 교보재를 영문 교재로 정식 출판하였는데, 이는 흥사단과 안창호 관련 내용, 한국의 역사 등을 영어로 알리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함
-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리버사이드 시청 광장에 도산 안창호 동상과 함께 나란히 서 있는 간디 및 마틴 루터 킹을 서로 비교하여 미국에서 활동한 시민운동가이자 인권운동가로서 도산 안창호의 역사적 의미를 찾는 작업에 대한 책을 집필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함
- **(캘리포니아 국외사적지 관련)** 현재 AURI 출장에서 방문하는 LA와 리버사이드(남가주) 외에도, 중가주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 리들리, 윌로우 등에서도 한인 관련 국외사적지를 찾아볼 수 있음. 특히 현재 까지도 관련 흔적이 남아있는 주요한 국외사적지로는 리들리 공동묘지와 윌로우 비행학교 터 등이 주요
- **(리들리 공동묘지)** 프레스노 남쪽으로 차량 40여분 거리에 위치한 리들리 시에는 1862년 설립된 리들리 공동묘지(Reedley Cemetery District, 2185 S Reed Ave, Reedley, CA 93654)가 위치하는데, 이곳은 미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한 인물을 포함하여 초기 미주 한인 이민자들이 다수 안장되어 있음
- 현재 145기의 한인 묘지가 있으며 독립유공자 김호(북미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총회장 등 역임, 2002년 이장하여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 김형순(대한인국민회 중앙집행위원 역임, 애국장 수여), 김용중(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 과장, 애족장 수여) 등 독립운동 관련 유공자 등이 다수 안장된 곳임. 기념 공간으로서 특별한 추모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장소임 (안장자 세부 정보는 세계한민족문화대전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http://www.okpedia.kr/Contents/ContentsView?localCode=naw&contentsId=GC95100987>)
- **(윌로우 비행학교 터)**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으로 차량 4시간 거리에 위치한 윌로우 비행학교 터(7233 Highway 162, Willows, CA 95988)는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의 모태가 되는 최초의 비행학교이자 독립군 비행사 양성소로, 1920년 상해 임시정부 노백린 장군과 쌀농사로 거부가 된 재미실업가 김종립이 건립
- 현재 윌로우 비행학교 터에는 비행훈련을 하던 활주로의 흔적이 남아있으며, 북쪽 필지에는 현 토지 소유주가 설치한 비료 보관용 사일로가, 남쪽 필지에는 격납고 형식의 구조물 1동 및 T자형 건물 1동, L자형 창고 1동이 남아있음. 현재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조사 및 연구 작업을 실시 중 (해당 연구용역은 임종현 대표의 미국 헤리티지 스마트 역사보존 컨설팅에서 진행 중이며, 8월 말 조사 및 측량 작업 등이 완료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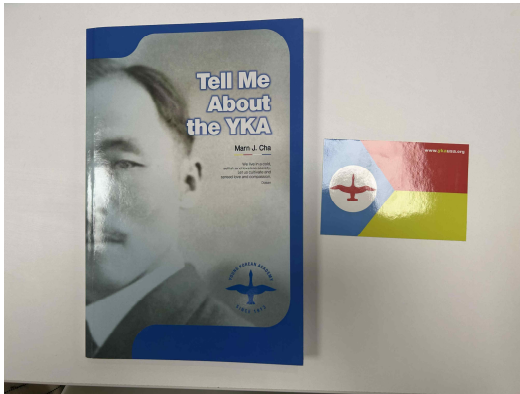
리들리 공동묘지, Reedley, CA

출처: 미주독립운동유적지, '리들리 공동묘지', <https://ytvamericadocu.wixsite.com/mysite/copy-of-5>



윌로우스 비행학교 터, Willows, CA

출처: 미주독립운동유적지, '윌로우스 비행학교 터', <https://ytvamericadocu.wixsite.com/mysite/berkeley>



(좌) 차만재 박사 저술 흥사단 영문교재 책자, (우) 흥사단 LA지부 제공 자료
7/14, 차만재 박사 및 흥사단 LA지부 제공 자료, AURI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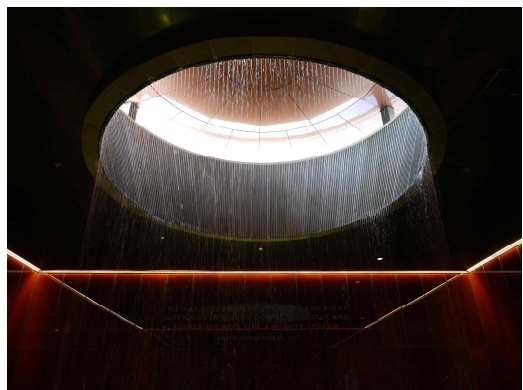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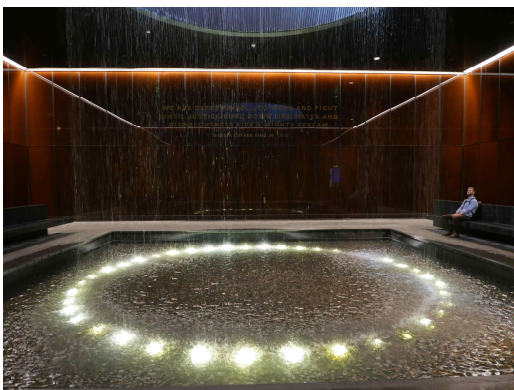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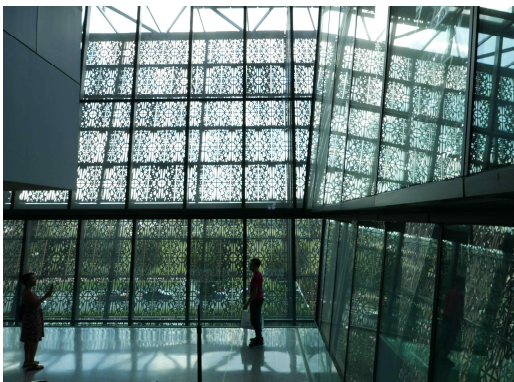


차만재 박사 면담 (출처: AURI 촬영)
7/14, LA (직접 촬영)

3) 이민사·이민유산 관련 박물관 답사

□ 국립흑인역사문화박물관 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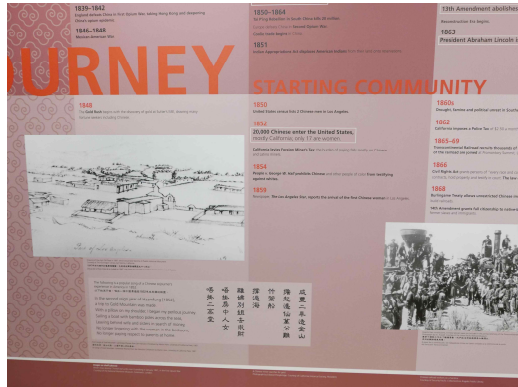
- 일시 : 2023년 7월 9일(일) 13:30 - 15:30
- 장소 : National Museum of African-American History and Culture, in National Mall,
(1400 Constitution Ave. NW, Washington, DC 20560)
- 참석자 : (AURI) 이규철 연구위원, 손은신 부연구위원
- 주요 내용
 - 국립흑인역사박물관(National Museum of African-American History and Culture)은 아프리카계 미국인(African-American)의 삶, 역사 및 문화에 대한 기록을 담당하는 유일한 국립 박물관으로 워싱턴 DC 내셔널 몰의 가장 대표적 상징물인 Washington Monument 앞에 위치
 - 미국 사회에 대한 흑인의 공헌을 알리기 위해 2003년 의회법(Act of Congress)에 의해 설립이 가결되었으며, 2016년 9월 24일 스미소니언 협회의 19번째 박물관으로 개관함
 - 박물관을 설계한 수석 디자이너 David Adjaye는 가나 출신으로 아프리카 54개 국가를 방문한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본 건축물은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의 다양하고 독특 요소를 건물 디자인 및 구조에 적용하여 설계됨. 예컨대 건물 파사드에서 사다리꼴로 쌓아 올린 왕관 모양의 장식은 'corona'라 불리는데 서아프리카 요루바 예술에서 사용되는 3단 크라운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으며, 건물의 주 출입구는 아프리카, 또는 아프리카계 디아스포라가 많이 거주하는 미국 남부와 카리브해 연안에 건축적 양식의 뿌리를 둔 양식임
 - 박물관 내부는 크게 2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지상에서 볼 수 있는 4층 높이의 건물은 1층의 홀과 현대 이후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기여를 보여주는 역사 및 관련 작품을 전시한 공간으로 흑인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줌. 반면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지하 공간은 박물관 마당 아래 공간으로 연결되어 지하 3층으로 구성된 역사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하의 역사 전시관은 지하 3층에서부터 지하 1층까지 연대기순으로 구성되는데, 지하 3층에서는 1400년부터 1877년까지 미국 내 노예 제도와 관련된 역사를 보여주며, 특히 기존 미국의 역사를 흑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내용이 주로 서술됨(예컨대 흑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미국의 Civil War나, 건국 초기 자유의 가치를 쫓았으나 자유의 대상에 흑인 노예는 포함되지 않았던 역설적 역사 등을 설명)
 - 지하 2층 전시관은 1876-1968까지 인종차별을 타파하고 자유를 얻기 위해 노력한 역사에 대해 전시하고 있으며, 특히 인종 차별과 관련하여 백인과 흑인이 타는 칸이 분리되었던 열차 등이 전시되어 있음
 - 지하 1층 전시관은 1968년 이후 현재까지 변화하고 있는 인식에 대한 내용을 전시하고 있으며, 지하 1층에서 본관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한 'Contemplative Court'는 박물관에서 가장 유명한 공간 중 하나로, 지상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지하로 떨어지면서 투과되는 빛과 조화를 이루는 명상의 공간임. 지하 역사전시관에서부터 지상으로 올라오며 살펴본 약 600여년의 African-American의 역사에 대해 되짚어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National Museum of African-American History and Culture (출처: AURI 촬영)
7/9, Washington DC. (직접 촬영)

□ 중국이민사박물관(Chinese-American Museum) 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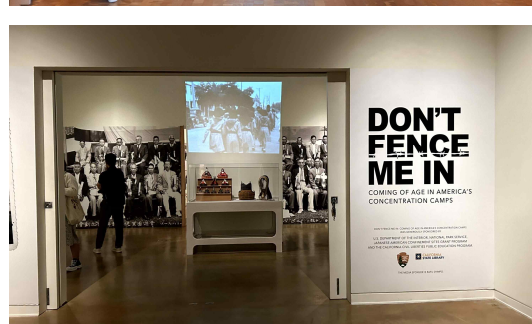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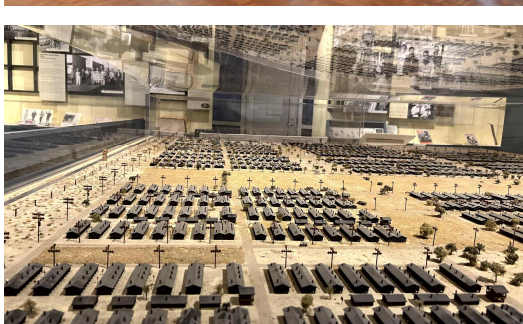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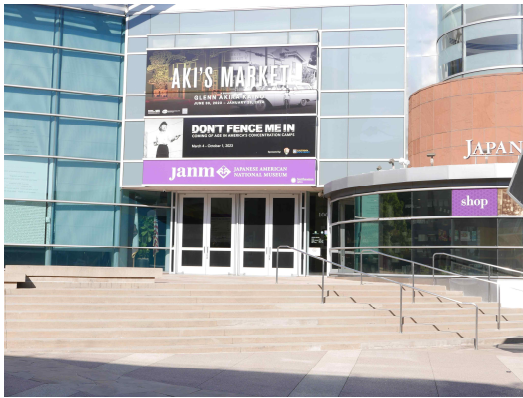
- 일시 : 2023년 7월 13일(목) 13:00 - 14:00
- 장소 : Chinese-American Museum (425 N Los Angeles St, Los Angeles, CA 90012)
- 참석자 : (AURI) 이규철 연구위원, 손은신 부연구위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강임산 소장
- 주요 내용
 - 중국이민사박물관(Chinese-American Museum)은 LA 시청 북동쪽, 유니언 스테이션(Union Station)의 서측에 인접하여 위치. 해당 위치는 본래 LA 구 차이나타운이 있던 지역으로, 과거의 차이나타운 건물 대부분은 1933년 유니언 스테이션 일대 개발로 인해 철거되어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음. 새로 형성된 차이나타운은 현재 기존 차이나타운보다 북쪽에 위치
 - 본 박물관 건물은 프랑스 사업가인 Garnier가 1890년 조성한 건물로, 차이나타운이 있던 19세기 말부터 많은 중국계 미국인 상인들이 건물을 임대하여 상점, 학교, 사원, 교회 등으로 사용한 건물로 현재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물임. 엘 푸에블로 역사 기념물(El Pueblo de Historical Monument)로 지정되어 있음.
 - 중국인의 미국 이주에 따른 Chinese-American의 형성은 1850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 금광과 철도 건설, 농장 노동자 등으로 1950년부터 1900년 사이 10만 여명의 중국인이 일자리를 찾아 대거 이주
 - 그러나 대규모 이주가 시작되면서 많은 노동 인력이 중국인으로 대체되었고, 캘리포니아에서 이에 대한 반향으로 1870년대 반중 폭력 시위(Anti-Chinese violence) 등이 벌어지기 시작. 특히 1879년 LA 시에서 실시한 중국 이민 금지 찬반 투표에서는 98%가 이민 금지에 찬성하는 등 사회적 여론의 변화가 나타남
 - 이에 1882년 미국 의회는 '중국인 배제법(Chinese Exclusion Act)'을 통과시키며 공무원, 교사, 학생, 상인 및 여행자를 제외하고 노동 목적으로 이민을 원하는 중국인의 추가 이민을 금지함. 이 법률은 특정 민족 또는 특정 출생 국가에 따라 미국으로의 입국 또는 이민을 거부한 미국 내 첫 법률 사례임
 - 이후 1906년 샌프란시스코 지진을 계기로 기존 출생 관련 공공문서 등이 훼손되면서, 해당 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존 미국에 거주 중이던 중국인 남성이 미국 시민권자임을 주장하거나, 이에 서류상 다른 인물을 자녀로 허위 증명하고 미국에 입국시켜주는 '페이퍼 썬(paper son)'이 생겨나는 계기가 됨
 - 특히 1910년부터 아시아계 입국자들은 엔젤 아일랜드(Angel Island)에 위치한 이민국에서 입국 가능 여부에 대한 까다로운 심사를 받는 등 유럽계 입국자들과는 차별된 대우를 받음. 당시 중국인 배제법은 제2차 세계대전 전이 발발하고 미국이 참전하면서 중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고, 중국계 미국인들이 군인으로 참전하기 시작하면서 1943년 폐지되었음
 - 로스앤젤레스의 Chinese-American Museum은 이처럼 LA 중국계 미국인 커뮤니티의 탄생과 기원에 대해 역사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현재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는 과거 LA 차이나타운의 지도 등 관련 자료가 수집되어 있음. 또한 Sun Wing Wo라는 이름의 중국계 미국인이 운영하던 잡화점 및 약초 상점의 실제 집기를 전시함으로써 이민 초기 중국인의 모습을 재현하여 보여주는 방식으로 전시가 구성됨
 - 박물관은 3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역사적 내용을 알려주는 전시의 1-2층과 달리 3층은 특별전시실로 중국계 미국인의 예술작품 등을 전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교체됨 (큐레이터의 박물관 Guide Tour를 신청하는 경우 \$3의 비용이 소요되나, Guide 없이 진행되는 일반 관람의 경우 무료 입장 가능)



Chinese-American Museum (출처: AURI 촬영)
7/13, LA. (직접 촬영)

□ 국립일본이민사박물관(Japanese-American National Museum) 답사 및 관계자 면담

- 일시 : 2023년 7월 13일(목) 16:00 - 18:00
- 장소 : Japanese-American National Museum (100 N Central Ave, Los Angeles, CA)
- 참석자 : (AURI) 이규철 연구위원, 손은신 부연구위원, (일본이민사박물관) Kristen Hayshi 학예사, (LA시청 도시계획과) Christina Park, (국외소재문화재단) 강임산 소장, (헤리티지 스마트 역사보존 컨설팅) 임종현 대표, Chad Keller
- 주요 내용
 - 국립일본이민사박물관(Japanese-American National Museum)은 LA 시청 남동쪽, 유니온 스테이션 남측에 인접하여 위치하며 리틀 도쿄(Little Tokyo) 지역에 입지. 스미소니언 협회 연계 국립 박물관으로, 1985년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일본계 미국인과 리틀 도쿄 내 사업가 그룹의 노력으로 리틀 도쿄 개발과 연계하여 1992년 개관함
 - 박물관 건물은 신축 본관 건물과 기존 불교 사원을 리노베이션한 별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별관은 Nishi Hongwanji의 불교 사원으로 1925년 LA에 세워진 첫 불교 사원이자 당시 유행하였던 일본 및 중동 등 다양한 건축 양식이 혼합된 건축물임. 1985년 일본이민사박물관 조성 과정에서 당시 소유자이던 LA 시와 50년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개조 및 복원을 거쳐 전시를 위한 박물관 및 수장고 공간으로 전환함. 이 별관 건물은 1986년 LA 시 역사문화기념물(Historic-Cultural Monument)로 지정됨
 - 일본인들이 처음 미국으로 이민을 시작한 공식적 기록은 1868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로서의 이민이며, 이후 선원, 유학생 등으로 소규모 이민이 이루어지다가 20세기 초부터 수십만 명의 대규모 이민이 시작됨. 일본계 이민자 1세대를 잇세이(Issei)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잇세이의 대규모 이민이 이루어진 배경으로는 1882년 미국에서 시행된 중국인 배제법(Chinese Exclusion Act)을 들 수 있음. 당시 캘리포니아 노동 시장에서 다수를 차지하던 중국계 이민자들이 더 이상 미국으로 이민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값싼 노동력을 원하던 기존 농장주 및 사업주들이 일본계 노동자를 채용하기 시작한 것
 - 그러나 중국계 이민자들의 노동인력 대체에 대한 사회적 반발과 마찬가지로, 1910-20년대에는 일본인 1세대 이민자들인 잇세이가 토지를 구매하지 못하거나 일본어 학교를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규제가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1924년에는 일본인의 추가 이민을 제한하는 이민법(Immigration Act) 등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음
 - 특히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 미국 내 일본계 이민자들에 대한 대우는 완전히 달라지면서 적국의 국민으로 간주되기 시작. 1942년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전역의 일본계 미국인 약 12만 명을 10개 수용소에 격리 수용하도록 하는 강제 집행을 실시, 나치 수용소의 유대인처럼 학대하지는 않았으나 전쟁 기간 동안 적국의 국민으로서 감시하도록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주택을 잃거나 빼앗기는 경우가 다수 발생 (추후 이러한 강제 수용에 대하여 1988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공식 사과하고 피해 배상을 한 바 있음)
 - 이에 재미일본인 2세(닛세이, Nisei)들은 적국의 국민이 아니라 미국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에 미군으로 참전하거나 적극적으로 미국인 커뮤니티에 동화되는 등의 방법을 취함으로써 이를 극복하고자 함
 - 최근 일본이민사박물관은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등 일본계 이민자의 생애 전반에 대한 인터뷰를 녹화한 후, AI 기술을 적용하여 방문자가 질문을 하면 사전에 녹화된 영상을 통해 해당 질문에 답하도록 하거나, VR 기계를 통한 체험형 전시 기법 등을 적용하는 등 전시 기법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음



Japanese-American National Museum (출처: AURI 촬영)
7/13, LA. (직접 촬영)

□ Getty Villa Museum 답사

- 일시 : 2023년 7월 14일(금) 14:30 - 16:30
- 장소 : Getty Villa Museum (17985 Pacific Coast Hwy, Pacific Palisades, CA 90272)
- 참석자 : (AURI) 이규철 연구위원, 손은신 부연구위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강임산 소장, (헤리티지 스마트 역사보존 컨설팅) 임종현 대표, (홍사단 LA지부) 이준학 지부장
- 주요 내용
 - Getty는 예술 및 문화유산의 수집, 보존, 해석 및 연구 등을 수행하는 민간 기관으로, 대표적 건물로 연구소 및 박물관이 위치한 Getty Center와 고대 로마의 대저택을 복원·재현하여 고대 그리스·로마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Getty Villa 박물관이 있음
 - Getty는 LA 시에서 역사문화자산 조사를 위해 다년도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Survey LA' 프로젝트의 공동 수행 및 지원 기관으로 많은 문화유산 및 역사보존 분야 연구자들이 Getty Center 및 Villa에서 연구 수행
 - 게티 재단 및 센터, 빌라 뮤지엄 등을 설립한 장 폴 게티(Jean P. Getty)는 1892년 미네소타주에서 태어난 스코틀랜드계 미국인으로 Getty Oil Company라는 석유 사업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업가 중 한명이 됨. 1950년대부터 그리스·로마 시대의 조각 작품을 수집하기 시작하면서 1974년 현재 로스앤젤레스 말리부 해안가 언덕 위에 Getty Villa Museum을 지어 대규모 조각 작품을 소장하도록 하고 일반인들에게 이를 공개 전시함. 한편 Getty Center는 장 폴 게티 사후 그가 직접 구매한 유물들과 재단에서 구매한 작품들을 모아 전시하기 위한 뮤지엄 및 연구소 공간으로 1997년 건립됨
 - 게티 빌라 뮤지엄의 특이한 점은, 게티 빌라 건물 자체가 화산 분출로 매몰된 나폴리의 거대한 전원주택인 고대 로마의 빌라 데이 파피리(Villa dei Papiri)를 재현한 곳이라는 점. 건물과 정원 모두 고대 로마의 전원주택을 본따 조성되었으며, 장 폴 게티가 생전 수집한 고대 그리스·로마 및 중세시대의 조각 등이 전시되어 있음



Getty Villa Museum 답사 (출처: AURI 직접촬영)
7/14, LA. (직접 촬영)

4) 이민사·이민유산 관련 장소 답사

□ German-American Friendship Garden 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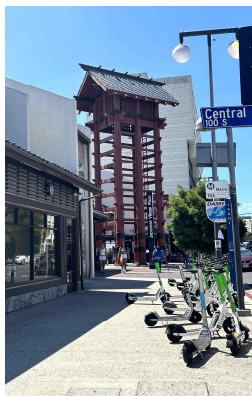
- 일시 : 2023년 7월 9일(일) 11:00 - 12:00
- 장소 : German-American Friendship Garden, in National Mall (1600 Constitution Ave. NW, Washington, DC)
- 참석자 : (AURI) 이규철 연구위원, 손은신 부연구위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강임산 소장
- 주요 내용
 - 독-미 우정의 정원(German-American Friendship Garden)은 워싱턴 DC 내셔널 몰의 워싱턴 기념탑(Washington Monument)과 백악관 사이에 위치하는 정원
 - 1683년 독일인의 첫 미국 이민이 시작된 지 300주년을 기념하여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직접 기념위원회를 설립하였고 독일 조경가 Wolfgang Oehme의 설계로 정원이 기획 및 조성 추진. 이후 1988년 11월 15일 백악관에서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독일 헬무트 콜(Helmut Kohl) 수상의 정상회담 당시 헬무트 콜 수상이 본 정원을 '우정과 연대'의 정신을 표방함을 공표하면서 공식적으로 헌정됨
 - 독-미 우정의 정원은 이후 지속적 유지관리의 문제로 점차 훼손되었는데, 2013년부터 National Mall Trust와 National Park Service, 주미독일대사관에서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복원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폭스바겐, 바이엘 등 독일계 기업들의 지원을 받음
 - 정원 자체는 소규모이며 독일과 미국의 자생 식물로 구성된 기하학적 형태로 조성되었고, 내부의 벤치와 동선 등은 남쪽의 워싱턴 기념탑과 북쪽의 백악관을 볼 수 있도록 구성됨



German-American Friendship Garden 답사 (출처: AURI 직접촬영)
7/9, Washington DC. (직접 촬영)

□ Little Tokyo 답사

- 일시 : 2023년 7월 13일(목) 14:30 - 16:00
- 장소 : Little Tokyo (Los Angeles, CA)
- 참석자 : (AURI) 이규철 연구위원, 손은신 부연구위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강임산 소장, (헤리티지 스마트 역사보존 컨설팅) 임종현 대표, Chad Keller
- 주요 내용
 - Little Tokyo는 LA 시내에 위치한 Japanese-American 구역으로 북미 재팬타운 중 가장 규모가 큰 지역에 속하며, 1995년 National Historic Landmark District로 지정됨. Little Tokyo 내에는 각종 일본 음식점과 상점, 사원, 일본이민사박물관 등이 위치함
 - 일본인의 대규모 이민이 시작된 1900년대 초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Little Tokyo 구역은 1924년 이민법 (Immigration Act) 시행에 따른 일본인 이민 제한과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의 일본계 미국인 강제 수용에 따라 쇠퇴,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틴계 미국인, 아메리카 원주민 등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변모
 - 이후 1970년대 후반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제 성장에 따라 리틀 도쿄 재개발 및 복원 사업이 수행되어 다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됨
 - 미국 내 일본계 이민자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의 강제 수용에 따른 규제 등에 따라 현재도 그 수가 많지 않으며, 전성기 당시에는 3만 여명의 일본인이 리틀 도쿄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는 일본 식당 및 쇼핑몰, 박물관 등이 위치하고 공연과 행사 등이 열리는 관광지의 성격에 가까움



Little Tokyo 답사 (출처: AURI 직접촬영)
7/13, LA. (직접 촬영)

□ Harada House 답사

- 일시 : 2023년 7월 15일(토) 15:00 - 16:00
- 장소 : Harada House (3356 Lemon St, Riverside, CA 92501)
- 참석자 : (AURI) 이규철 연구위원, 손은신 부연구위원, (헤리티지 스마트 역사보존 컨설팅) 임종현 대표, (흥사단LA지부) 최창호 前지부장, 이준학 지부장,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강임산 소장
- 주요 내용
 - Harada House는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에 위치한 일본인 주택으로, 1913년 캘리포니아에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California Alien Land Law of 1913)과 관련하여 일본인이 미국 주 정부를 상대로 아시아 이민자들의 재산 소유 제한에서 승소한 첫 사례. 1977년 리버사이드 시 랜드마크로 지정되었고, 1990년 12월 14일 National Park Service에서 국가 사적지(National Historic Landmark)로도 지정됨
 - 1884년 건립된 이 주택은 1915년 일본인 하라다 주키치(Jikichi Harada)와 하라다 켄(Ken Harada) 부부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인 미성년자 자녀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사례로 당시 외국인의 토지 소유 금지 법안에 근거하여 피소되었으나, 1918년 승소하면서 오히려 외국인의 토지 소유와 함께 인종 및 국가적 차별에 대한 증거로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음.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하라다 가족은 일본계 미국인 강제 수용소로 보내어져 사망했으나 이웃 백인 친구의 도움으로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었음
 - 현재는 리버사이드 시에 기증되어 안정화 및 복원 작업을 수행 중이며, 추후 박물관 등으로 활용될 계획



Harada House 답사 (출처: AURI 직접촬영)
7/15, Riverside. (직접 촬영)

4. 출장 성과 및 시사점 요약

□ 미국 내 주요 국외사적지 활용·관리 현황 조사

-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 리버사이드 등 미국 동·서부 지역의 주요 국외사적지 분포 및 활용·관리 현황 상세 조사
- 관계자 면담을 통해 현지에서 국외사적지의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미국사무소, 워싱턴 및 LA 한국문화원, 민간기관으로서 서재필기념재단, 흥사단 LA지부, USC한국학연구소, 대한인국민회기념재단 등 단체의 운영·관리 현황 및 주요 특성 조사
- 특히 공유유산으로서 각 국외사적지가 지니는 미국 현지에서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에 대한 현지 조사 수행
- 미국 내 국외사적지의 지속적인 활용·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국내 기관 연계 및 지원 방안 모색
 - 독립운동 관련 국외사적지가 전시관으로 활용되는 경우, 대부분 국내 독립기념관을 통해 조사·연구가 수행되고 전시 콘텐츠가 제작되고 있음 (예: 서재필기념관, 대한인국민회기념관 등)
 - LA에 위치한 한미 우정의 종 또는 다올정과 같이 한국 전통건축 양식으로 조성된 경우, 현지에서의 보수를 위한 재료 및 인력 지원이 필요

□ 아시아계 미국인(Asian-American) 이민사 및 이민유산 현황 파악

- 미국은 다인종 국가로, 하이픈(hyphen, -)으로 표기되는 African-American을 비롯하여 아시아계인 Korean-American, Japanese-American, Chinese-American 등 이민자의 국적에 따라 서로 다른 이민사적 배경을 지님
 - 1400년대부터 시작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역사는 흑인 노예 역사에서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며, 뉴욕타임즈의 1619 project를 비롯하여 내셔널 몰에 위치한 국립흑인역사문화박물관 등에서도 기존 미국의 역사를 흑인 중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자 하는 역사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Chinese-American은 캘리포니아의 금광, 철도 건설, 농장 등의 노동자 인력 유치를 위한 노동 인력으로 19세기 말부터 대규모 이민을 통해 형성되었으나, 기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반중 정서로 인해 1882년 중국인 배제법(Chinese Exclusion Act)이 시행. 이에 중국인의 이민이 금지되면서 Japanese-American과 Korean-American이 새로운 노동 인구로 부상하기 시작하여 1890년대부터 1900년대 초까지 일자리를 찾아온 일본 및 한국계 이민자의 수가 증가
 - 그러나 당시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토지 소유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등 여전히 미국인이 아닌 이방인(alien)으로 취급되었으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시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Japanese-American은 적국의 국민으로 간주되어 강제 수용을 당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음

-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 내 이민유산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먼저 이민사 자체에 대한 역사적 조사와 의미 발굴을 통해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경우, 두 번째로 미국의 주요한 역사적 인물 또는 사건, 건축 양식 등과 관련된 유산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리고 타 국가와의 협력 및 교류의 상징으로서 유산으로 지정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 첫 번째로, 이민사 자체에 대한 역사적 조사 및 의미 발굴을 통해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리버사이드에 위치한 Harada House가 대표적 사례로, 아시아계 이민자에 대한 토지 소유 금지법(California Alien Land Law of 1913)에 대한 승소 사례로서 이민사적으로 유의미한 의미를 지니는 사례임. National Historic Landmark District로 지정된 LA의 Little Tokyo 또한 유사한 사례라 할 수 있음
 - 두 번째로, 미국 내 주요한 역사적 인물 또는 사건, 건축 양식 등과 관련된 유산으로 지정되는 사례는 다수 찾아볼 수 있음. 예를 들어 LA의 흥사단소와 USC한국학연구소 등은 대한민국 국외사적지로서 미주 한인사회의 독립운동의 거점이자 도산 안창호 가족이 거주하였던 주택 등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지만, 미국에서 해당 건축물은 20세기 초반 주택의 건축적 양식이 잘 남아있는 주택이라는 점에서 주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님
 - 마지막으로, 다른 국가와의 협력 및 교류의 상징으로서 유산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LA 시의 한-미 우정의 종을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음. 또한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이민 100주년 기념 동상, 기념비, 건축물, 장소 등이 조성되는 경우 등 기념비적으로 주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례를 살펴볼 수 있음
- 일본과 중국의 경우 이민자의 역사를 알리고 관련 자료를 수집·연구하기 위한 목적의 박물관이 설립·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또한 독립운동 중심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계 미국인의 전반적인 이민사와 커뮤니티의 형성 배경 등에 대한 조사·연구 및 안내·홍보가 필요
-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아시안 미술관 프리어 갤러리 내 한국실 및 중국실·일본실 등이 기증자의 자료를 통해 형성되었고, LA의 Getty 박물관이 대부호 개인의 수집 자료에서 출발하여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된 것처럼, 해외에서 한국 관련 유산을 수집한 수집가의 자료 또는 해당 자료가 모여 있는 박물관 등에 대하여 국외사적지 및 공유유산의 관점 적용 방안 모색 필요 (예: 일본 고려미술관 사례 등)

□ 미국 내 이민유산 정책 추진 현황 조사

- LA 시 관계자 면담을 통한 미국 내 이민유산 정책 추진 현황 조사
 -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문화유산은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 내무부 소속 National Park Service가 국가사적지(National Historic Landmark)를 지정하여 관리되며, 주 또는 시 정부 차원에서는 역사문화기념물(Historic-Cultural Monument) 또는 역사지구(Historic District) 등으로 문화유산을 관리
 - 주 또는 시 정부에서 문화유산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경우 세금 감면(tax reduction)의 형태로 문화유산의 유지보수·관리를 지원하며, 이는 보수·복원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국내 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 정책과는 차이를 보임
 - 최근 LA시는 기존의 역사유산 외에도 African-American, Asian-American 등 이민자와 관련된 유산, 여성 인권사 관련 유산, LGBT 관련 유산 등 다양한 주제로 문화유산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어 공유유산으로서 이민유산의 추후 지정 가능성 증가

- 공유유산으로서 이민자의 관점에서 기존 국외사적지 가치 평가 방법 필요

- 미국 내 이민유산의 경우, 해당 역사적 인물이 미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또는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역사적으로 의미를 지님
- 예를 들어 서재필의 경우 한국인으로서 미국의 제1호 시민권자이며 미국 내 첫 한국인 의사이자 개화사상가 및 운동가로서 역사적 의미를 지녀, 워싱턴 주미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 건물 앞에 서재필 동상이 건립되었으며 미국 서재필기념재단이 한인 의사를 중심으로 결성되는 배경이 됨. 또한 신앙과 자유 디스커버리 센터의 주요 인물로 선정되는 계기가 되기도 함
- 도산 안창호의 경우, 부인 이해련 여사와 함께 미국 내 첫 한국인 시민권자 부부라는 점에서 미국에서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며, 1900년대 초 리버사이드 오렌지농장에서 일하며 한인 노동소개소를 운영하였다는 점은 리버사이드 시청 앞 광장에 노동운동가이자 사상가로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간디, 세자르 차베스 등과 함께 동상이 설립되는 배경이 됨

□ 미국 내 공유유산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기관 조사 및 연구원의 연구·사업 내용 홍보

- 미국 내 공유유산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협력기관 파악 및 K-공유유산 사업 내용 공유
 - 미국 내 국외사적지 현황 파악 및 조사, 관리 등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미국사무소를 비롯 한국 관련 문화활동 및 행사를 담당하는 한국문화원, 외교 기구인 주미국대사관 등과 면담을 통해 기관의 운영 현황 및 주요 국외사적지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K-공유유산 사업 내용 및 AURI 소개
 - 각 국외사적지의 활용·관리를 담당하는 민간 비영리단체인 홍사단 LA지부 및 한미유산재단, 서재필기념재단, 대한인국민회기념재단, USC 한국학 연구소 등과의 면담을 통해 주요 국외사적지 활용·관리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K-공유유산의 사업 내용 및 AURI의 주요 연구 내용에 대해 소개
 - 또한 LA 시 문화유산 지정 담당 부서인 도시계획과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K-공유유산 사업 추진 현황과 AURI의 관련 연구 내용을 소개함
- 미국 내 국외사적지 관련 전문가 면담을 통해 대한민국 국외사적지 및 공유유산 정책 추진 관련 현안 공유 및 연구 소개
 - 국외사적지 관련 연구자 면담을 통해 K-공유유산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AURI에서 수행 중인 주요 연구 소개하였으며, K-공유유산 정책 추진을 위한 관련 현안을 공유함
 - 또한 연구자 이외에도 지역 활동가, 언론인 등 다양한 전문가 및 관계자와 면담을 수행하여 K-공유유산의 정책 추진 현황과 AURI 수행 연구 등을 소개

붙임. 구독 자료 목록

□ 도서 자료

- 문화재청·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3).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매입 1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 문화재청·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9).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복원 보고서』
- 이범진. (2020). 『미사일록(美槎日錄)』. 김철웅 역.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발행. 서울: 푸른역사.
- 이상재 역음. (2019). 『미국공사왕복수록(美國公私往復隨錄)』. 한철호 역.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발행
- 홍선표. (2009). 『서재필 개화 독립 민주의 삶』. 서재필기념재단 발행. Philadelphia: The Philip Jaisohn Memorial Foundation.
- Marn J. Cha. (2018). 『Tell Me About the YKA』. Los Angeles: A Young Korean Academy Publication.

□ 디지털 자료

- LA City, Department of City Planning. (2023). Preserving Cultural Heritage in Los Angeles: The Work of the Office of Historic Resources. 발표자료. pdf.
- 무대예술인그룹 시선. (2018). 뮤지컬 도산(Musical DOSAN). 영상자료. CD.
- 주한미국대사관저. (2017). The Residence of the U.S.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주한미국대사관저 소개 자료(국/영문). pdf.
- LA 흥사단소 부동산 등기서류. 2023. Kevin Kim 대표 제공 자료. pdf.
- 주미대사관저 주요 공간 내부 사진(대외용). 주미국대사관 제공.
- 2019년 필라델피아 제1차 한인회의 100주년 기념행사 사진. 서재필기념재단 제공.